

##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2025.08.30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사업 개요]

- **사업명** :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온(ON)’ 구축 사업
- **주관 / 후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 **목표** :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수용자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 **사업 기간** : 2022.01.01. ~ 2025.12.31 (48개월)
- **사업 대상** : 수용자 자녀 및 가정
- **사업 내용** :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수용자자녀 대상 통합적개별지원 운영 등

### [주요성과 요약]

-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 : 수도권을 넘어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에서 지역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수용자 자녀의 접근성을 크게 확대함.
- **통합적 개별지원과 가족지원 실현** :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가정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함.
- **독립적 공간 확보** : 사옥마련을 위한 부동산 구입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토대 마련함.
-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캠페인 확장** : 세움ON(메타버스), 홈페이지 개편, SNS·유튜브·블로그 기반 인식개선 콘텐츠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참여와 후원자 유입의 기반을 구축함.
- **사회 인식개선과 제도화 기반 마련** : 국회포럼, 국제컨퍼런스,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수용자 자녀 지원의 필요성을 정책·법제도 차원에서 공론화함.

## [주요 이벤트]

-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구축 (2022.11.10) :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첫 거점 마련
-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구축 (2023.09.01) : 대전 함께하는 교회와 협업하여 진행
-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 (2023.11.10.) : 수용자자녀 지원 체계 강화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논의
-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2024.11.20) : 법무부·보건복지부·아동권리 보장원 등 관계 부처 및 국회의원과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
- INCCIP 국제학술대회 (2025.07.01~04) : 아시아 최초, 12개국 수용자자녀 전문가 및 당사자 청년 참가, 국제 연대의 장 마련
-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캠페인 인스타툰 (2022) : 수용자자녀 당사자들로 구성된 청년자문단이 직접 기획한 인스타그램 웹툰(인스타툰) 연재 프로젝트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 (2023) :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사회적 과제로 공론화하고 참여 기반을 강화
- Stand Firm Film Festa (2024) :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참여하여 진행한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 수용자자녀 접견권 보장 캠페인 (2024) : 13세 미만만 가능한 돌봄 접견의 나이 제한을 19세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



# **제1장 임팩트그라운드**

## **사업 성과 및 총평**

## I. 세움의 미래비전

###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온(ON)' 구축사업

#### 1. 더 가까이 더 깊게

##### 1) 더 가까이

######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 거점 운영 안정화: 지역 기업의 공간 후원과 참여 덕분에 지역 거점이 갖춰졌습니다.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참여자 방문 및 상담, 회의 및 미팅 등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 통합적 개별지원의 일상화: 신규 접수 후 가정방문과 전화 상담을 즉시 연결하고, 정서·학업·생계 등 복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 개별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위기상황 긴급지원, 심리상담, 멘토링, 면회 동행 지원 등의 가족지원도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지역 네트워크 확장: 교정·보호관찰·학교·지역아동센터·종교·기업 자원과의 접점을 넓히며 현장 의뢰가 자연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과 봉사가 일시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당사자 중심 활동의 정착: 멘토링, 상담, 양육자 교육 등을 통해 관계 기반의 회복 경험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 서도록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 위탁 사업 기반 안정화: 지역 전문기관과의 위탁 운영을 통해 생활권 정보와 네트워크를 사업에 접목했습니다. 행정체계가 정비되면서 접수-평가-지원-점검의 내부 표준이 자리 잡고, 문서·증빙·보고 체계도 안정화됐습니다.
- 집중 보완 전략: 초기에는 행정 정착에 무게가 실려 현장 지원이 다소 더디었으나, 이후 가정방문 주기 상향, 다양한 사업 수행으로 통합적 개별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남이 어려운

가정은 양육자 면담과 유선관계로 라포를 이어가며, 대면 전환의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 멘토링·체험활동의 가속: 지역 대학교와의 협력으로 멘토 수급이 안정화되었고, 데이캠프·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성과 경험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제공해 정서 안정과 참여 지속성을 높였습니다.
- 민관 연계의 다층화: 위탁기관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자원을 필요 시 연계할 수 있게 되었고, 면회 및 긴급지원 등 긴급한 서비스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습니다.

### **전라권 통합지원센터**

- 개별지원의 질적 심화: 참여자 개별만남에 집중하여 관계 형성과 욕구 파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집행했습니다. 라포가 형성된 가정은 필요에 따라 생활·정서·학업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 사례회의·슈퍼비전의 내재화: 까다로운 사례는 내외부 슈퍼비전과 연합 사례회의로 풀어가며, 현장의 판단 부담을 덜고 전문성 기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담당자 교체나 환경 변화에도 개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 지역 기반의 확장: 사례 담당자가 후원자 방문, 컨퍼런스 참여, 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전라권 안에서 세움ON의 존재감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라권 내에서 아동 및 기관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세움ON 통합지원센터는 각 권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춰 세움의 통합적 개별지원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가까이”라는 비전은 각 권역의 사업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되었고, 아동과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바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각 권역에서 구현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 더 깊게 -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

세움은 수용자자녀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와 지지체계 속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중심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통합적 개별지원과 가족지원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초기 접수부터 사정·개입·점검·종결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사례관리 경로를 마련하고, 심리·정서·관계·학업·생계·법률 등 복합 욕구를 한 묶음으로 다루는 방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되 가족 전체를 개입 단위로 보고, 보호자 교육·상담·가족 재결합 활동을 병행해 변화가 지속되도록 개입했습니다.

세움은 “더 깊게”라는 비전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지원이 따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참여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통합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진행했습니다. 위기에는 빠르게 안전망을 펼치고, 안정기에는 관계·학습·경험의 기회를 축적하여 회복을 성장으로 이어주는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참여자 지원 활동은 변화를 이끌고, 가족지원과 인식개선은 변화의 지속을 돕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움의 통합적 개별지원은 일상적 실천이 되었고, 수용자자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와 지지체계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더 깊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착했습니다.

## **2. 더 많이 더 넓게**

### **1) 더 많이 -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과 만남**

오프라인 지원체계로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어려운 수용자자녀·가족에게도 안전하게 닿기 위해, 세움은 “더 많이”라는 비전 아래 오프라인 지원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과 가상공간을 통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실현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공간 세움ON을 구축해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상담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수용자자녀 가족도 손쉽게 세움에 접근하고, 접수·상담·안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하고, 오프라인에서 깊이 있는 개입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자리 잡아, 더 많은 아동과 가족이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세움은 오프라인 중심의 한계를 넘어 “어디서든 먼저 닿고, 준비되면 더 깊이 돕는” 방식을 만들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안전하게 세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더 넓게 - 비대면 콘텐츠 개발로 인식개선 활동 확장**

세움은 “더 넓게”라는 비전을 따라, 오프라인에 머물던 인식개선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이야기와 현장 기록, 권리 옹호 메시지를 공유하며 수용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접점은 수용자 자녀들의 문의와 상담으로 연결되고, 후원자들의 후원과 지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과 후원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연대를 통해 수용자 자녀들의 권리 이슈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컨퍼런스와 국회포럼 등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확장하면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제도 개선의 영역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모인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는 실제 정책 제언과 변화 요구의 근거로 활용되며, 인식개선 활동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인식개선의 범위와 깊이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온라인은 넓은 도달과 참여의 문을 열었고, 오프라인은 깊이 있는 만남과 실질적 변화를 담보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지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법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II.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 1.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촘촘한 Community 구축을 통한 위기수용자자녀의 접근성 확대

#### 1) 정의

수용자자녀는 보호자의 부재, 경제적 빈곤, 돌봄의 공백, 사회적 낙인 등 중복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부분의 공적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전국적으로 권역 통합적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수용자자녀 당사자에 도달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창구를 개발하며, 위기 아동 개별 사례를 발굴하고 적절한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자녀의 접근성과 신뢰를 향상시키고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 2) 주요성과

##### (1) 전국화된 지역 기반 운영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임팩트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에 각 권역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지역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80여명이었던 수도권 외 지원아동은 240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본부는 수도권 내 사례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전체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실질적 정책 개선 및 공공 네트워크를 수행하며, 후원자와의 관계 강화 및 인식개선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상권은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하여 부산지역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역 내 교정기관 및 후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상권 내 통합적 개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해 각 지역 내 지원범위를 점차 확장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사업 이관을 준비하며 지역 내 수용자 자녀들에게 통합적 개별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운영 기반은 단순한 지역거점 확보를 넘어, 각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역 중심의 실질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2) 서비스 신청 창구의 확대**

온라인 기반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3년 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수용자 자녀 및 보호자, 교정기관, 학교 관계자 등이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전체 서비스 신청 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문의 및 신청의 약 60% 이상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다양화되어 2022년에는 전국 교정기관 내 교정위원 및 심리상담위원 중심으로 사례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이후 보호관찰소, 법무부 위탁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교육청 산하 학교의 상담교사, Wee센터 등을 통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현직 교사와 복지사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거나 아동을 연결하는 등 창구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창구 확보는 위기 상황에 있는 수용자자녀가 조속히 지원체계에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가족들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 **(3) 사례 확대와 통합적 개별지원 정착**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기간 (2022~2025년 상반기) 동안 약 1,100여 건의 신규 의뢰가 접수되었고, 2022년 172건에서 2024년에는 416건으로 3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개선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접근성 증가와 교정청, 교도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수행한 것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통합적개별지원'을 중심으로 초기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주거 불안, 생계 위기, 학대 의심 등 복합적 상황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주거·상담·법률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상담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멘토링', 청소년 동아리 운영, 학업 및 취업 준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주기에 맞춘 지속적 개입이 시도되었습니다.

또한 10대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 및 자립 기반 지원으로 확장되었으며, 특히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를 통해 복지 자원 연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긴급 개입에 그치지 않고, 한 명의 아동이 세움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 사례 종결 시점에는 자기표현력 향상, 관계기

술 회복, 진로 탐색 등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 **2.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통합**

### **1) 정의**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 해체, 심리적 고립,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는 사회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유대 회복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이 다시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회복력과 공동체 속 소속감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체계입니다.

### **2) 주요성과**

#### **(1)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움에서는 수용자 자녀의 가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수도권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수용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센터에 올 수 없는 지역의 대상자들의 경우 상담센터 비용을 지원하여 수용자 자녀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용자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면회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부모가 출소한 가족의 경우 가족여행을 지원하여 가족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자녀와 수감된 부모 간의 정서적 교류 기회를 확보하였고, 면회를 통해 아동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단위 여가활동은 단절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로 작용하였고, 상담과 교육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 **(2) 수용자 자녀 당사자 모임 운영**

청소년동아리, 청년 자문단 활동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되짚고, 가족 내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는 일본 해외봉사활동, 사진 기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또래 간 연대감을 형성했고, 청년 자문단은 자서전 출판 및 북토크, 인터뷰 등 외부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자기효능감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키워갔습니다. 특히 2025년 진행되었던 4기 청년 자문단 '기억함의 용기' 도서 출판기념회는 수용자 부모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용서, 이해, 치유라는 가치들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고, 이는 가족 간 새

로운 관계 형성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 **(3) 가정 내 위기 해소 지원**

가족 내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빠른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 긴급심리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감성코칭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도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수용자자녀 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며, 자녀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아가 위기 개입 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내 통합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3.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생태환경 변화**

### **1) 정의**

수용자자녀는 부모의 수감이라는 범죄와는 무관한 상황 속에서 낙인과 차별, 단절의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무지와 편견,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적대적일 경우, 아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입니다. 이는 단발성 캠페인이나 지원을 넘어서, 정책 제언, 공적 담론 형성, 디지털 기반의 소통 전략, 제도와 현장의 교량 역할을 포함한 다층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 **2) 주요성과**

#### **(1) 정책 제언**

세움은 수용자자녀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제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를 주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에는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21대·22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수용자자녀 보호 3법'의 추진에도 기여하며 입법화 논의를 구체화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2025년 INCCIP 국회 간담회를 주관하여 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 법안을 주제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을 제도화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 **(2) 인식개선 캠페인**

세움은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인스타툰 연재, 영상·에세이 공모전, 어린이날 이벤트 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는 접견권 보장, 권리 확대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꾸준히 펼쳤습니다. 또한 청년 자문단 활동을 통해 책 발간과 전시회를 추진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세움은 아시아 최초로 INCCIP(수용자자녀 국제연대) 국제컨퍼런스를 주관하며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제적 담론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민들이 수용자자녀를 보다 가깝게 이해하고 관계 형성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생활고와 위기를 겪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 지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3) 세움 리브랜딩과 온라인 기반 강화**

2022년, 세움은 기관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로고·슬로건을 포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비했습니다.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보 제공 위주의 일방향 소통에서 벗어나 수용자 자녀 당사자와 일반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청, 참여,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채널 기반의 소통이 강화되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세움의 활동을 소개하고, 수용자자녀의 사연을 알리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했습니다.

## **(4) 교정시설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세움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전국 교정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수용자 자녀 사례 연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수용자자녀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식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 접근성과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 수용자자녀 지원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교정기관에서 직접 수용자 자녀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특히 교정본부를 통해 인식개선 관련 자료가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되어 전반적인 시스템 내 인식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III. 핵심 사업 최종 결과

#### 1.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성과

주제	지원 전	지원 후
지원아동 수 증가	178명 (2021년)	550명 (2025년) : 300% 증가
가정방문 수 증가	52건 (2021년)	209건 (2024년) : 400% 증가 180건 (2025년 상반기)
권역 통합지원센터 구축	수도권 사무실 한정	수도권 사무실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충청권 통합지원센터(위탁) 전라권 사례관리(위탁)
온라인 강화	홈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 BI 리뉴얼 메타버스 세움ON 유튜브 채널 세움TV 아동관리 CRM 플랫폼
인식개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촉구 민간협력 국회 간담회 수용자자녀 3법 발의 위기수용자자녀 국회 간담회 INCCIP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기후원자 증대	580명 (2021년)	979명 (2025년) : 170% 증가

#### 1)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주제	지원 전	지원 후
지원아동 현황	수도권: 67명 경상권: 44명 전라권: 27명 충청권 12명	수도권: 310명 경상권: 94명 충청권: 72명 전라권: 74명
가정방문 현황	수도권: 42명 경상권: 1명 전라권: 4명 충청권 5명	수도권: 65명 경상권: 53명 충청권 29명 전라권: 33명 (2025년 상반기)
세움 종사자 수	총 7명	총 15명 직영 : (수도권 10명, 경상권, 2명) 사업위탁 : (충청권 2명, 전라권 1명)

## 2) 통합적 개별지원

주제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상반기
신규의뢰	172명	323명	416명	190명
개별방문	87건	208건	387건	267건
성장지원비	1,673명	2,190명	2,413명	1,484명
긴급지원	373건	343건	94건	84건
물품지원	1,825회	2,969회	3,667회	1,812회
심리상담	71명	102명	101명	21명
면회지원	71건	231건	199건	112건
양육자지원 및 교육	119건	142건	112건	49건
가족여행	21건	19건	21건	11건

## 3) 디지털 플랫폼 강화 및 인식개선 활동

주제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상반기
신규 의뢰 경로	기존경로: 100%	기존경로: 59% 홈페이지: 41%	기존경로: 42% 홈페이지: 58%	기존경로: 43% 홈페이지: 57%
인식개선 활동	메타버스 세움온 인식개선 인재양성 프로 젝트	수용자자녀 심리정서 지 원 서명 캠페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 인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 Stand Firm 전시	수용자자녀 돌봄 접견권 서명 캠페인 전시회 '화양연화: 어둠 속에서 피어나다' 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Stand Firm Film Festa'	기억함의 용기 출판 기 념회 INCCIP 국제 컨퍼런스
활용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메타버스 홈페이지 개편	메타버스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세움TV	메타버스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세움TV

#### 4) 연도별 핵심과제 및 결과

연도	핵심 과제	결과
2022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경상권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공간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권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사무실 공간 셋팅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6번길 7-2 해송빌딩 403호 / 051) 465-0936</li> <li>부산역 도보 3분거리로 접근성 용이</li> <li>전세 2억 / 5년 계약</li> </ul> </li> <li>인력 배치와 슈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장 1명, 간사 1명</li> <li>본부 교육 과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지원회의 및 슈퍼비전 별도로 진행</li> </ul> </li> <li>행정의 독립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부에서 사업비를 분기별로 내려보내서 자체 운영</li> <li>월 1회 지출, 결산 보고 및 결제 시스템</li> </ul> </li> <li>지역사회 자원과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권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개소 기념 세미나 -22년 11월 10일 부산일보사 10층</li> <li>-경상권 위기 수용자 자녀지원 네트워크 발족식을 통해 기업, 재단, 공공기관 협력의 체계를 마련</li> <li>-개소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li> <li>-언론 홍보 (경상권통합지원센터구축, 세미나, 부산지방검찰청기 관협력 등 (총 12회)</li> <li>• 부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교정청과의 긴밀한 협력 -대구지방교정청 운영위원 위촉(센터장, 간사) -지방 검찰청, 교정청 의뢰로 신규 참여자 인원 증가</li> </ul> </li> </ol>

	<p><b>통합지원센터 확대운영</b></p>	<p>1.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p> <p>1)수도권 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인 추가</li> <li>• 지역 통합지원센터센터 담당자 교육, 훈련, 지원 기능 강화</li> <li>• 본부 간사 중심으로 통합적개별지원 운영 가이드 3.0 집필 작업을 통해 서비스 지원 기준 정리</li> <li>-담당 실무자 교육과 신규 직원 훈련용으로 활용</li> </ul> <p>2)참여자 중심의 개별 프로그램 확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찾아가는 멘토링)</li> <li>-전국으로 확대 운영/권역별 여름캠프 진행</li> <li>• 한동대 대학생 1:1 멘토링</li> <li>-학습 멘토링: 전국(온라인)</li> <li>-활동 멘토링(오프라인) 경상권 중심</li> </ul> <p>2. 네트워크 활용</p> <p>1)민관협력 지원체계로 신속한 신규 발굴과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4개 교정청 내 위기 수용자자녀지원팀 신설과 담당 실무관(공무직) 선발로 본격적인 의뢰와 개입 체계 마련</li> <li>• 초기 가정 방문시 교정청 실무관들과 동행하여 참여자 입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지원 내용 확대 실시 • 지방검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미결 상태의 구속 초기 위기 수용자 자녀 발굴과 개입의 기회 확대</li> </ul> <p>2) 지역사회 수용자 자녀 지지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 충청, 전라권의 대학교, 지역사회복지기관,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기관, 법률 기관 등과의 교류로 지지체계 확대</li> <li>• 국제 수용자자녀 연합 INCCIP 이사국 활동으로 정보 공유와 교류(온라인 참여)</li> <li>-국제 수용자 자녀지원 협력방안논의</li> <li>-각국의 사업 활동, 조사연구, 정보 등 공유</li> <li>-23년도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 국제 컨퍼런스 참여 예정</li> </ul>
	<p><b>가상공간 세움온(ON) 구축과 인식개선</b></p>	<p>1. 가상공간 세움 타운 구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놀이터 구축 및 효과성 연구」 진행</li> <li>• 목적 : 메타버스 내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긍정적 인식개선 활성화.</li> </ul> <p>2. 리브랜딩 작업을 통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BI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전문가 컨설팅과 내부 직원 워크숍을 통해 세움의 미션과</li> </ul>



		<p>가치를 담은 목적북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브랜딩의 의미와 이미지를 활용한 홈페이지와 BI 제 작으로 홍보 효과</li> <li>• 모바일 버전도 가능하며 다면적, 입체적, 쌍방향 의사소 통의 가능성이 강화되어 활용성을 높임</li> </ul> <p>3. 지역사회 캠페이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 임팩트 송실대학교 2022-2학기 교양 교과목 (3학 점)으로 개설 : 사회문제 해결 소셜임팩트 스쿨</li> <li>•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송 실대학교 학과목으로 진행. 강의와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방식으로 운영함.</li> <li>• 초기 목표로 했던 것과 달리 실제 수업 신청 인원이 적 어 인식 개선 서명 5천 명 데이터 확보에 도달하지 못 함.(계약 연장으로 내용 변경하여 23년에 이어서 진행 예정)</li> </ul> <p>4. 홍보영상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자녀인 청년 당사자 자문단 3명의 자발적 참 여와 세움의 사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후원자 들의 인 터뷰 내용을 담은 3편의 영상 제작</li> <li>• 머스타드 임팩트와의 협업으로 진행</li> <li>-23년 1월 하이머스타드 채널 업로드 예정</li> <li>-자체 세움tv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블로그 통해 활용 예정</li> </ul>
2023	<p>수도권,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의 안정화</p>	<p>1. 기존 통합지원센터 세움온의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센터 세움온의 신규 참여자 증가와 의뢰 통로의 다양화 (홈페이지 신청 증가)</li> <li>• 통합적 개별지원 확대로 가정방문, 만남의 횟수 증가</li> <li>• 통합지원센터 세움온의 가족지원 확대로 위기 환경 극복</li> <li>• 동아리, 찾아가는 멘토링, 대학생, 성인 멘토링, 자문단 등 참여자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 증가</li> <li>•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도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 임대료 지원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li> </ul> <p>2. 신규 통합지원센터 구축 (충청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구축 모델</li> <li>• 대전 함께하는 교회와 협업 체결(공간, 관리비 지원, 운영위원회 등 관련 협업)</li> <li>• 사무실과 모임 공간 확보, 담당 인력 배치(센터장 1인, 간사 1인)</li> </ul> <p>3. 네트워크 강화</p>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지방 교정청을 통한 지속적인 신규 의뢰</li> <li>• 지역안에서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참여</li> <li>위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 개최로 협의체 구성의 기틀 마련</li> </ul>
	<b>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한 잠재 후원자 발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한 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 플랫폼 도입을 통한 부서간 소통의 장벽을 낮추어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li> <li>• 지원 아동 데이터 관리 플랫폼 개발을 통한 정보 관리 체계화, 아동 중심의 사업 효과성 측정 기반 마련</li> </ul> </li> <li>2. 모금 연계한 인식개선 통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대시민 참여 캠페인 기획</li> <li>• 온오프라인 통합캠페인 집행을 통한 잠재후원자 확보</li> </ul> </li> <li>3. 유튜브 채널 '세움TV'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정례화</li> <li>• 시청자 이벤트 등을 통한 구독자 증대로 기관 매체력 확보, 유튜브 매체의 특징점을 활용한 양방향 고객 소통 기반 마련</li> </ul> </li> <li>4.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후원자 2,000명 대상 후원전환 텔레마케팅 시행, 신규 후원 및 증액 후원 개발</li> <li>•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통한 신규 후원 유치</li> </ul> </li> </ol>
	<b>부동산 구입으로 기관의 안정적 운영</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의 빠른 의사결정과 지원, 세움 이사회 승인으로 신속한 부동산 구입 절차가 진행</li> <li>• 사옥 매입으로 이전 대비 사무실 운영비 지출 기준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li> </ul> </li> <li>2.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과 건물선정 인테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접근성과 직원의 출퇴근 고려한 위치 선정, 건물의 활용성을 고려한 건물 선택</li> <li>• 세움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녹여 낸 공간 완성</li> <li>• 전체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을 포함 인테리어 비용을 후원 통해 초과 모금 달성</li> </ul> </li> </ol>
	<b>지속가능한 통합지원센터 운동을 위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춘 개별 맞춤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욕구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멘토링 참여 기회 확대</li> </ul> </li> </ol>

	<b>지역사회로의 이관 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선정 기준을 부모 수용 인지하는 미성년자녀로 재조정하여 성장과 위기로 집중</li> <li>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통합적개별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접수부터 상담일지, 지원 현황 기록, 종결까지 참여자 데이터의 입력, 통계 가능</li> <li>• 각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li> </ul> </li> <li>3.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로 통합지원센터 이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 학교, 상담기관, 복지관 등과 지속적인 관계망 확장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li> <li>•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세움의 미션과 비전에 동의하는 단체와의 협업과 위탁 추진</li> </ul> </li> </ul>
	<b>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아동 데이터 통합관리 및 후원자 소통 강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례관리 플랫폼 안착을 통한 아동 지원 데이터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담당자의 사용 후 피드백을 반영한 플랫폼 개선</li> <li>• 아동 지원 데이터의 실질적 누적 및 통계 수치의 정확성 강화</li> </ul> </li> <li>2. 수용자 자녀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잠재 후원자 DB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접근권 보장 캠페인 (13세 이상 돌봄접견 확대 제도개선 촉구) 진행</li> <li>• 서명 참여자 약 800여명 대상으로 한 리드 제너레이션(후원전환) 활동 진행</li> <li>• 당사자자문단 기획 전시 '화양연화:어둠속에서 살아남다' 개최 및 성과 공유</li> </ul> </li> <li>3. 유튜브 연계를 통한 특별 모금 및 후원 행사를 통한 신규 후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 채널(룸팔이팔) 연계한 사옥 인테리어 지정 모금 및 권역 센터 운영 모금 진행</li> <li>• 후원자 우대 행사 (집들이 바자회) 초청 및 참여 이벤트 진행</li> <li>• 갓피플 플로잉, 한만두 분기별 식료품 후원 등 기업 물품후원자 유치</li> </ul> </li> </ol>
<b>2025</b>	<b>INCCIP 국제 컨퍼런스</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인 수용자 자녀의 목소리 확대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퍼런스 발표자 37명 중 13명이 당사자 청년이었으며, 직접적인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함.</li> <li>• 당사자 청년 발표 세션 및 국회포럼에서 수용자 자녀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언론 및 입법,행정기관에 이슈 전달.</li> </ul> </li> <li>2. 연구조사 발표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전략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입법조사처, 국내외 학계 전문가 및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용자 자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함</li> <li>• 총 37건의 발표 중 10건이 정책제안형 연구였으며, 실태조사, 제</li> </ul> </li> </ol>

		<p>도적 공백 분석, 회복적 관점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수용자 자녀 지원 법안' 발의 관련 공유 및 국회포럼에서 논의의 장 마련함</li> </ul> <p>3.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권리옹호 생태계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국 80여 명의 공식 참가자(직원·봉사자 제외) 참여, 국제수용자자녀연대 (INCCIP) 이사진 및 회원기관들과의 교류의 장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li> <li>•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등 다양한 지역의 실천 모델과 정책 현황 공유</li> <li>• '세움'이 INCCIP 이사단체로서 지속 가능성 및 향후 국가 간 공동사업의 기반 강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후속 아젠다 논의 예정.</li> </ul>
	<p><b>통합지원센터 이관과 안정적인 운영</b></p>	<p>1. 경상권 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상반기에 총 80여 가정 대상의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외부공간 확보(김익태 장로 후원) 및 이전 감사행사를 통해 후원자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확장함.</li> <li>•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 서비스 제공(상담·교육·생활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수용자 자녀의 복합 욕구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함.</li> <li>• 외부 네트워크(교정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와의 협력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담당자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정례화를 통해 질적 관리도 병행함.</li> </ul> <p>2. 충청권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과복지연구소에 위탁되어 세움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체계를 마련함. 정기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공유하며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동안 11가정 이상을 신규 발굴했으며, 30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지원을 진행함.</li> <li>• 수용자 자녀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 멘토링, 긴급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참여자별 욕구에 맞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li> </ul> <p>3. 전라권 위기수용자자녀 사례 관리 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가치'와의 협약을 통하여 전라권에 위치한 수용자자녀의 사례관리 전반 업무를 위탁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li> <li>• 2025년 상반기 동안 9가정을 신규 발굴하고, 35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지원을 진행함.</li> </ul>

## IV.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담당자 총평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된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수용자 자녀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국 권역화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첫해인 2022년은 세움의 비전과 미션을 재정립하고, 조직 리브랜딩과 홈페이지 개편, 서비스 구조 재설계를 통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으로 전국 권역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에는 사옥 마련을 통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구체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움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INCCIP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수용자 자녀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1. ‘더 가까이, 더 깊게’

#### (1) 전국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세움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밀착형,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에서 통합적 개별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상담·심리정서지원, 가족지원, 긴급지원 등 다각적 개입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은 사례 발굴과 위기개입의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2) 통합적 개별지원 사업의 정착

세움은 통합적 개별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용자자녀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 회복과 보호자 기능 강화를 위해 상담센터 운영, 면회지원, 가족여행 등 심리적 회복과 재결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당사자 자문단과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을 넘어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3) 사옥 마련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하여 사옥 마련을 위한 부동산을 구입한 세움은 사업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참여자 아동과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고 일관된 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옥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참여자 가족과 세움, 후원자까지 연

결하는 상징적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단기적 사업 성과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세움이 국내 유일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단체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 '더 많이, 더 넓게' -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네트워크

### (1)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개발

세움은 오프라인 지원의 지리적 물리적 한계를 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메타버스 가상공간 운영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 가족과 대중들까지 전국 어디서든 세움에 접근 가능한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2) 디지털 채널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세움은 뉴스레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발신함으로써 대중들이 수용자 자녀의 삶을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용자 자녀가 처한 상황을 낙인과 편견의 시각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3) 정책 제언 활동

세움은 수용자 자녀 지원을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책 제언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국회 간담회를 통해 권리 보장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정부·국회와 협력의 장을 만들었고, 아시아 최초로 INCCIP 국제컨퍼런스를 주관하여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국제 연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수용자 자녀 문제가 지역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과 입법 논의, 나아가 국제적 협력 과제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세움은 수용자 자녀를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지역사회와 정책, 시민, 당사자가 함께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수용자 자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 제2장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 및 결과

## I. 핵심 사업 개요 및 최종 결과

### 1. 전국 통합적 개별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항목	사업 내용 (2022~2025.06.30 누적)
신규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101명 (597가정)</li> <li>- 교정청 위기수용자 자녀 실무관들과 가정방문을 동행하며 수용자자녀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줌.</li> <li>- 홈페이지 개편 시 참여자,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메뉴를 추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졌음</li> <li>-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정보를 줘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음.</li> </ul>
개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949명 (533가정)</li> <li>- 참여자와 전화, 문자, 메신저로 활발하게 소통을 함. 참여자의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방문이 늘어나고 있음. 위기 긴급사례 발생시 집중적인 개입(정기만남, 병원 동행 등)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li> <li>- 참여자를 일반, 성장, 위기집중 사례로 나눠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함.</li> <li>- 위기개입이 필요한 사례는 지역내 연계된 기관과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역할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진행함. 공적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짐.</li> <li>- 매주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며, 권역별로 슈퍼비전을 받아 지역안에서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찾아갈 수 있었음.</li> <li>-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파악과 점검이 빠르게 이뤄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음</li> </ul>
성장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누적인원 7,760명, 누적 지원금액 855,546,950원</li> <li>- 정기적으로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초등까지는 월 7만원, 중고등 월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참여자 아동의 상황과 결연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함.</li> <li>- H-projet 장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진로진학을 목적으로 연 300만원안에서 학원비와 가정형편에 따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 꿈을 포기하지</li> </ul>



	<p>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부터 성장지원비 후원 모금을 통한 1:1 결연을 목표로 법인 예산에서 지출함.</li> </ul>
긴급위기 일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94가정</li> <li>- 긴급지원은 정기 참여자 중심으로, 일시지원은 정기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함.</li> <li>- 긴급지원은 정기 참여자 중에 선정함. 이사, 체납, 공과금 등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 가장 많았음.</li> <li>- 2022년 코로나 긴급지원, 2023년 난방비 지원 긴급지원</li> <li>- 생계, 주거, 의료문제 등 일상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함</li> <li>- 위기가정의 경우 타 기관에서도 위기지원사업 자원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원함.</li> </ul>
물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0,273건</li> <li>- 생일, 가정의 달, 명절, 식료품, 수험생, 입학선물, 김장김치, 크리스마스 선물, 비정기적 물품지원 등 다양한 물품 지원 진행</li> <li>- 다양한 후원물품을 통해 가족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들을 발송할 수 있었음. 선물 발송시 가족의 특성과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하여 진행함.</li> <li>- 개인, 단체, 교회, 모금함 등의 후원금과 물품을 통해 직접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각 개인과 가정에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음.</li> <li>- 명절이나 절기에는 교회, 학교, 기업, 개인 등이 선물을 후원하고 포장 작업에도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음.</li> </ul>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3건</li> <li>- 참여자 아동과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신청을 받아 진행함. 법률자문단과의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중심의 법률지원과 신중한 사례 선정을 논의함.</li> <li>- 아동의 양육권과 친권, 아동의 성과 국적 변경,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 참여자 소년 보호 사건 등 진행함.</li> </ul>
찾아가는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원 총 401명</li> <li>- 소그룹 멘토링 : 그룹별 총 4~5회씩 활동 진행</li> <li>-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권역별로 나눠서 멘토 1명에 멘티 3~4명 그룹으로 구성</li> <li>- 여름캠프 : 권역별 1박2일 캠프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캠프시 세움 실무자가 스텝으로 참여하여 부족한 지도자 공백을 충원하고, 참여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었음. 그룹별로 이뤄졌던 활동도 좋았지만, 권역별로 이뤄진 캠프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li> </ul>
대학생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참여인원 총 87회</b></li> <li>- 멘토와 멘티가 1:1로 함께 활동 주제, 내용, 장소, 시간 등을 정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함.</li> <li>- 경상권과 충청권에서 진행되었으며, 면접을 통해 멘토를 선발하여 적합한 멘티와 매칭을 진행함. 한국침례신학대학, 한남대, 한동대, 고신대 등과 협력.</li> <li>- 멘토 프로그램 사후 만족도조사 결과 '매우 도움되었다' 5점 만점이 100%였음. 멘티 역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87%였으며, 새로운 경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기술, 정서적 지지, 학습, 진로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li> </ul>
성인 멘토링 (세움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참여인원 총 57명</b></li> <li>-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과 경상권에도 성인 멘토링을 시작함.</li> <li>- 초등부터 현재 고등까지 지속된 멘토와의 관계속에서 사춘기, 유해환경 노출 등 위기가 있었지만 멘토의 전적인 지원과 개입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음.</li> <li>- 수용 부모가 출소한 후에도 멘티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들이 안정되고 멘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li> <li>- 정기적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위기 상황이 공유되면서 조기 대응과 위기집중 사례로 개입할 수 있어 멘토와 세움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짐.</li> </ul>
청소년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참여인원 총 75명</b></li> <li>- 수도권 거주 중고등 참여자들 중심으로 진행됨. 월 1회 모임으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여름 캠프를 통해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형성과 알아가는 과정을 가짐.</li> <li>- 오리엔테이션에서 구성원들이 연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리더와 선배 멘토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됨.</li> <li>- 청년 자문단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송년 모임 이후에도 선배들이 동아리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피드백이 있었음.</li> <li>- 초반에 라포 형성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간 것이 친밀감과 소속감에 도움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이 사전 모임에서 1년동안 하고 싶은 활동을 사전 계획하고 진행하여 동기부여와 자발성이 커짐.</li> </ul>
청년자문단 1~5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참여인원 총 48명</b></li> <li>- 1기: 공동프로젝트 [글쓰기] 집중 활동 진행. "어둠 속에서 살아남다" 책 출판 기념회 진행. 책을 쓰는 과정에서 리더와 임원단이 중심이 되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한데 큰 의미가 있음. 글쓰기 작업을 통해 수용자 자녀로써 풀지 못했던 트라우마와 상처, 아픈 기억을 직면하는 과정이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됨.</li> <li>- 2기: 공동프로젝트 콘텐츠 (인스타툰, 스토리 캘린더) 제작. 콘텐츠는 세움 홈페이지, 인스타 등 SNS 채널을 활용하여 업로드 하고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활용함. 웹툰은 영어로 번역하여 INCCIP, COPE와 같은 국제 채널에도 업로드하여 한국의 수용자 자녀 실태를 공유함.</li> <li>- 3기: 공동프로젝트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화양연화'작품 전시회 진행. 글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안에 수용자 자녀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냄. (그림 6점, 사진 7점, 글 아트 10점, 영상 1편, 곡 2편 등) 콘텐츠는 당사자 구성원이 직접 기획, 콘텐츠 제작, 준비, 전시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전시회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직접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감동이 있었음. 이후 작품을 도슨트 및 스케치 영상, 작품소개 카드 뉴스로 인식개선 콘텐츠를 확산함.</li> <li>- 4기: 공동프로젝트 [글쓰기] "기억함의 용기" 책 집필 및 도서출판과 출판기념회 진행. 모임 초기에는 라포형성을 위한 활동과 강연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후 구체적인 기획 방안을 논의하며 여름방학에 2박 3일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 초안을 완성함. 멤버중에는 중고등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꾸준히 참여하며 성장한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어 당사자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빨랐음. 글쓰기 내용에 맞는 삽화는 4기 활동에 참여하는 멤버가 직접 작업하여 출판 모든 과정이 당사자 참여 프로젝트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음.</li> <li>- 5기: 2025년 상반기 구성되어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단원들의 자율성을 높여서 월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공동프로젝트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이는 라디오 등의 형식으로 당사자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고자 준비하고 있음.</li> </ul>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95명</li> <li>-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이 확대되고 가정내 개입이 활발해지면서 신규 발굴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li> <li>- 상담의 형태 : 개인상담, 놀이치료, 동작치료, 독서치료, 언어치료, 심리검사</li> <li>- 내부 상담의 경우 양육자의 욕구와 참여도가 높았음. 양육자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담지원을 통한 회복이 의미가 있었음. 내부상담에는 자원봉사자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직접적인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환대받는 경험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음.</li> <li>- 외부상담은 이전에 연계되어 있던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참여자를 재의뢰하기 용이하였음. 외부상담 연계시 기관방문을 통해 세움 소개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인식개선과 후원으로 이끄는 성과가 있었음.</li> <li>- 월드비전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음.</li> <li>- 경상권은 23년부터, 충청권은 24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상담 연계를 함으로써 상담 기관 네트워크와 연계가 용이해짐.</li> </ul>
면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613회</li> <li>- 면회 지원을 통해 가족 만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감된 부모와 아동이 지속적으로 만나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정기적으로 면회를 신청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li> <li>- 토요일 아동 돌봄 접견의 경우 13세미만인 아동만 가림막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가 있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일반접견을 해야해서 가족이 함께 접견을 가게 될 경우가 어려움이 있었음. 면접권 보장 캠페인과 서명(1,157명)을 통해 결과를 법무부에 요청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함.</li> </ul>
양육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15가정</li> <li>- 어버이날, 초복 때 조손가정에 보양식을 지원함.</li> <li>- 자녀의 수감으로 손자녀를 돌보게 된 조손 가정의 양육자에게 심리정서적인 위로와 큰 힘이 된다는 감사의 피드백이 있었음.</li> </ul>
양육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07회</li> <li>- 강사가 참여자 가정으로 직접 가서 그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 만족도와 효과가 높음.</li> <li>- 출소 후 진행된 양육자 교육의 경우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자의 관계 회복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됨.</li> <li>- 양육자는 자신의 가정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양육 기술을 습득하</li> </ul>

	<p>여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음.</p> <p>- 세움의 가정을 잘 이해하는 전문 강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행함으로써 효과가 컸음.</p>
<b>가족여행</b>	<p>• <b>총 72가정</b></p> <p>-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의 목적을 두고 계획서를 쓰는 것 부터 함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함.</p> <p>-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이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가족 사이가 더 끈끈해졌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p>

## 2.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안정화

항목	내용
<b>경상권 통합지원센터</b>	<p>• <b>지역기반 경상권 수용자자녀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구축으로 위기 수용자자녀 접근성이 확대되었음.</b></p> <p>1. 공간, 인력, 자체 행정 운영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구축됨</p> <p>① 공간구축 진행</p> <p>• 부산 지역 후원자의 도움으로 공간 선정과 인테리어 업체, 공간 셋팅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음.</p> <p>② 인력선발과 훈련</p> <p>• 센터장 1인과 간사 1인 (총 2명)의 인력으로 시작함. 센터장은 3월에 간사는 4월에 선발하여 공간 셋팅과 인력구성을 동시에 진행함.</p> <p>• 본부에서 신규 직원 선발 후 1주일 동안 집중식 신입직원(센터장/간사) 교육을 실시하여 세움의 비전과 미션을 비롯한 사업과 운영 전반을 공유함. 각 실무 담당자들이 교육을 진행함. 실질적인 내용 전달과 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p> <p>③ 자체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 실시</p> <p>• 전화, 팩스, 은행 계좌, 이카운트 계정, 기안, 공문 등</p> <p>• 센터 구축 이후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예산을 집행함.(6 월 이후)</p> <p>2. 신규개발과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면서 내용을 채워감.</p>

신규개발이 21 년 19 가정에서 22 년 43 가정(68)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가정방문 횟수 역시 증가했음. 신속한 발굴과 개입이 진행되어 참여자 가정의 욕구와 필요에 촘촘하게 반응하게 됨. 또한 서비스 지원 내용의 다양성과 참여자와의 스킨십이 많아짐.

### 3. 경상권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개소 세미나 (발족식)

- 주제 : 위기수용자 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일정 : 22년 11월 10일(목) /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
- 목적 :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의 개소를 알리고, 지원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함.
- 내용
  - 1부 : 경상권 위기 수용자 자녀지원 네트워크 발족식  
부산지검, 대구지방교정청, 그린월드(주), 삼미문화재단, 세움
  - 2부 : 좌장 김영종 교수(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최경옥, 성공회대 외래교수), 토론(부산지검 이영규 인권감독관, 오원종 법무부 사무관, 김묘연 한국회복연구소 대표, 윤의호 경상권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센터장)
  - 교정기관, 부산지검, 기업, 언론,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약 50명의 인원이 참여함. 경상권에서 세움의 활동을 공식화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 및 후원 그룹을 구성함.

### 4. 통합적 개별지원 사례의 지속적 증가

-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는 사례기반 중심의 통합적 개별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단순 지원이나 1회성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례 발굴, 초기상담, 위기 지원, 심화개입, 관계형성 및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진행함.
-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및 가정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주거 불안, 양육자 부재, 심리적 위기, 교육 중단 등 다양한 복합문제를 가진 아동 및 가정에 대해 심층 개입을 진행함.
- 특히 심리상담, 긴급지원, 가정방문상담, 멘토링 등을 연계하며 사례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였음.

### 5. 지역 내 네트워크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을 확대했다.</li> <li>- 교정기관, 학교, 지역복지시설, 상담센터 등과의 정보 공유, 사례 연계, 공동 개입을 수행하였으며 실질적인 실무협력을 통해 사례 개입 속도와 연계 범위를 넓혔다.</li> </ul> <p>6.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공간 이전 및 2025년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배경: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4월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통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이 공간은 지역 후원자인 이재모피자 김익태 장로의 후원으로 무상 제공되었으며, 이는 유튜브 채널 '룸팔이팔'을 통한 모금 캠페인 및 후원자 연결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협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li> <li>• 정기참여 가정이 전년 동기 대비 1.6배(29가정 → 47가정)로 확대되었고, 집중지원 대상자와는 월 1회 이상 개별 만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함. 세움의 강점을 살린 통합적 개별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li> <li>• 멘토링 사업은 세움파트너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였고, 업무 재분장 및 CRM·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li> </ul> <p>7.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공간 이전 감사예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감사예배 개최 (2025년 4월 7일)</li> <li>- 참여 인원: 경상권 지역 후원자, 실무자, 관계자 등</li> </ul> </li> <li>• 의미: 단순한 사무실 이전을 넘어, 지역 후원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공동체적 나눔 사례'로 볼 수 있음.</li> <li>• 기대 효과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 공간 확보를 통해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됨</li> <li>- 안정된 공간에서 지역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회의, 자원 연계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짐</li> <li>- 지역사회의 참여 기반 확장</li> </ul> </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권 통합지원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23 년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구축과 운영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진행함으로써 위기수용자 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b></li> </ul> <p>1. 공간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함께하는 교회와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구축 MOU 체결</li> <li>- 협약기간 : 2023 년 9 월 1 일~2025 년 8 월 31 일(24 개월)</li> <li>- 위치 : 대전 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38 3 층</li> <li>- 협약의 목적과 내용</li> </ul> <p>함께하는 교회로부터 공간과 운영을 지원받아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ON) 구축. 사무공간과 모임공간, 관리비 지원. 함께하는 교회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함과 동시에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협약하에 진행하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셋팅과 차량지원</li> <li>- 업무를 위한 가구, 사무용품, 집기류 구비 및 배치, 행정업무 진행</li> <li>- 참여자 개별지원을 위한 차량을 본부에서 충청권으로 이전 배치</li> </ul> <p>2. 인력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배치와 교육</li> <li>-담당인력 : 센터장 1 명, 간사 1 명</li> <li>-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세움의 미션과 비전, 가치공유, 사업, 행정교육)</li> <li>-담당사례 스터디, 인수인계, 전화, 가정방문 인테이크 동행</li> <li>-정기적인 사업회의와 사례회의(주 1 회), 상시 슈퍼비전 진행</li> </ul> <p>3.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지방교정청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교정 작품 전시회 참관, 미팅)</li> <li>•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행정기관, 대학교, 교육, 종교 단체 등 방문 연계</li> <li>• 지역사회 바자회 참여(세움 홍보와 캠페인 진행)</li> </ul> <p>4. 지역사회로의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년 통합지원센터의 지역 밀착성과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 년부터 충청권 통합지원센터를 지역 기반 복지 전문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에 위탁함. 이는 세움이 각 권역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 방식을 확장해가는 과정의 일환임.</li> <li>• 지역 기반 운영 체계 강화</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정과 자원에 밝은 지역 내 기관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 아동복지 전문성과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보유한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음</li> <li>- 사례관리, 위기개입, 지역 자원 연계 등 통합적 개별지원의 실행력이 향상됨</li> <li>• 2025 년 3 월부터 본격 위탁 운영을 시작한 충청권 통합지원센터는 상반기 동안 148 가정에 성장지원비를 제공하며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며, 신규 사례뿐 아니라 과거 사례도 함께 원활하게 관리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li> <li>• 멘토링·상담 등에서 가정방문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아동과 보호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례 발굴도 확대함. 초기 운영임에도 다양한 개입 시도가 이루어짐.</li> </ul>
<b>전라권 사례관리</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기수용자자녀 지원 사업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움이 '함께가치'에 전라권에 위치한 위기수용자자녀 사례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전라권 수용자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li> <li>- 이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권역담당자(1 인)가 전라권의 수용자자녀들을 담당하여 접근성이 부족하였지만, 지역에 담당기관을 세움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li> <li>- 신규가정 접수,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면회 동행, 멘토링 등 세움의 통합적 개별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함.</li> </ul> </li> </ol>
<b>사옥 매입과 사무실 이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옥 매입으로 법인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년 1 차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 매수의 건 결의</li> <li>• 부동산 계약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20 억)</li> <li>• 하나은행 대출(7 억 5 천)</li> <li>• 계약금 및 잔금처리</li> <li>• 임대차변경 계약서 작성</li> <li>• 사옥구입으로 이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등 월 운영비 지출에서 500 만원 정도 절감의 효과</li> </ul> </li> <li>2.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과 환대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계약</li> <li>-업체 : 브엘세바 인테이어 (건적:240,000.000 원)</li> <li>• 공사기간 (24 년 4 월 16 일~5 월 30 일)</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업체 선정 및 계약(통인 이삿짐센터)</li> <li>• 사옥 이전 (5 월 30 일)</li> <li>• 사옥이전에 따른 후속업무 진행</li> </ul> <p>-정관변경 "부동산 임대업" 추가</p> <p>-소재지 변경(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4 대 보험 등)</p> <p>-전기세, 수도요금 명의 변경 등</p> <p>-건물관리 규정 매뉴얼 마련</p> <p>3. 신사옥 리모델링 비용이 계획한 예산 보다 초과했으나 유튜브 '룸팔이팔' 세움 소개를 통해 리모델링이 초과 모금됨. 4 층 복합문화공간 벽에 후원의 벽을 만들어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김. 이후 세움의 정기 후원자로도 영입이 되는 결과가 있었음.</p>
--	--

### 3.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

항목	내용
가상공간 세움온(ON) 구축	<p>1.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 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메타버스 내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 자녀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긍정적 인식개선 활성화</li> <li>• 내용 : 교육과정 속 다양한 가족 이해,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교도소접견체험,(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이해), 수용자가족 아동에 대한 정보(카드뉴스, 유튜브영상,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내용) 등 다양한 활동, 십자말 풀이, ox퀴즈룸, 방탈출 게임을 통해 체험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마련</li> <li>• 메타버스 상호작용 설문 및 게시판 참여 현황(11/17~11/30 기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설문, 방명록, 퇴장설문, 소감 총 478명 참여</li> <li>-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체험을 하기 전과 후의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조사함.</li> <li>- 메타버스 효과성 분석 대상은 사전,사후 설문에 참여한 동일한 참여자로서 181명의 응답을 분석함.</li> </ul> </li> <li>• 결과 : 메타버스 다양한 가족 전체 참여자의 참여자 소감(312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미, 좋은, 다양한 가족형태, 메타버스 공간, 배움 순으로 나타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참여소감으로는(42명 분석) 배움, 좋음, 재미, 메타버스 공간 다양한 가족형태 순으로 나옴.</li> <li>- 세움 메타버스 주소 : <a href="https://bit.ly/seum.on">https://bit.ly/seum.on</a></li> </ul>
<p><b>디지털 기술도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업 플랫폼 도입과 '데이터로 일하기'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 지역 센터 확장에 따른 부서간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li> <li>• 진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도입하여 협업 프로젝트 관리 및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 방식 정착.</li> <li>- 피드백 중심 업무 내재화, 업무의 시각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법 (애자일 프레임워크), 협업 툴 활용 방법 등 전사 교육 4 회 진행.</li> </ul> </li> </ul> </li> <li>2. 통합적 개별 지원 플랫폼(CRM, Child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개발 및 사용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 아동 지원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 데이터에 근거한 지원사업 실적관리를 위한 세움 맞춤형 시스템 개발, 이후 실제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 작업을 통해 사용성 개선하여 세움 맞춤형 서비스로 정착.</li> <li>• 진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중심 통합적 개별지원 방식에 따른 사례관리자 요구사항 청취</li> <li>- '수용자 자녀'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아동정보 관리 기능 개발</li> <li>- 홈페이지 참여 데이터와 CRM 플랫폼 데이터 연동</li> <li>- 서비스별 성과 관리, 사업 실적 통계 대시보드 개발</li> <li>- 레거시 플랫폼에서 신규 플랫폼으로의 데이터 이관 진행</li> <li>- 사례관리 담당자 10 인의 사용 피드백 30 여건의 접수 및 개발 완료</li> <li>- 데이터 필드 추가 개발, 지원 상태값 반영, 멀티지원 등록 개발 등 담당자의 중복과업을 제거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완료</li> <li>- 약 1500 여건의 지원아동 누적 데이터 이관 완료</li> <li>- 10 인의 사례관리자의 지원 아동 정보 및 지원서비스 데이터 입력, 관리 기록 진행</li> <li>- 통계 대시보드 기준, 권역별, 연령별, 시기별 아동 지원 데이터 정확도 향상</li> </ul> </li> </ul> </li> <li>3.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 문서 관리, 인사 정보 및 근태 관리의 효율성 도모</li> <li>• 진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우오피스'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전자결재 도입</li> <li>- 기안 양식 개발 및 내부 결재 시스템 안착</li> <li>- 선택근무, 재택/원격 근무에 따른 유연근무제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근태 관리 시스템 안착</li> </ul> </li> </ul>
<b>유튜브 채널 '세움 TV' 강화</b>	<p>1. '수용자 자녀'를 지지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인터뷰 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소셜 섹터 및 유관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세움의 대내외 네트워크 확보,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타겟으로 '당당함'을 전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편</li> <li>• 2023 년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 회 정기적인 영상 배포를 통해 초 84 개 영상 배포</li> <li>- 총 1,225 명의 구독자 수 확보, 누적 조회수 62,140 회 달성</li> <li>-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진적인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영상의 몰입도 향상, 영상 당 시청 지속시간 전년 대비 104% 증가</li> </ul> </li> <li>• 2024 년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움 TV 주차별 영상 1 회 정기 배포, 총 48 개 영상 배포</li> <li>- 주요 포털사이트 SEO 최적화 진행하여 수용자 자녀, 세움 검색 결과 노출</li> <li>- 세움 TV 구독자 댓글 이벤트 참여자 수 384 명, 조회 수 2,635 명, 댓글 504 건 달성</li> <li>- 채널별 누적 구독자 인스타그램 1,220 명, 유튜브 1,550 명, 카카오톡 470 명</li> </ul> </li> </ul> <p>2. 시청자 이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구독자 충성도 강화 및 고객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참여 기회 제공</li> <li>•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움 TV 구독자 1,000 명 기념 이벤트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li> <li>- 이벤트 영상 654 회 조회, 276 명 참여, 총 26 건의 시청자의 콘텐츠 아이디어 수집</li> </ul> </li> </ul>

<p><b>인식개선 활동</b></p>	<p>1.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젝트 (2022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년 2 학기 숭실대학교 교양과정(3 학점) / 최종 수강인원 13 명</li> <li>- 16 차 교육과정 후 3 개조로 구성된 캠페인 콘텐츠</li> <li>- LG ESG 앱 알지? 캠페인 연계</li> </ul> </li> <li>• 프로젝트 성과와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양성 프로젝트로써 교과과정과 세움의 유의미한 후원 발굴의 차별적 접근 필요</li> <li>- 한 학기 정규과정보다 좀더 가볍게 세움의 콘텐츠를 활용한 대학생들의 단기 서포터즈 활동이 명확한 과업으로 캠페인 결과물에 성과가 있다고 봄</li> <li>- 사회적 가치측정과 브랜드 마케팅 분야 이론과 함께 실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활동과 서업들에 적용해보는 심화 수업이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함.</li> <li>- 학생들을 통한 새로운 후원 및 서명 플랫폼을 만들기보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LG 그룹의 ESG 실천을 위한 기부 챌린지앱 '알지?앱에' 수용자 자녀의 생일 케이크 캠페인으로 다소 무겁지 않게 터치하는 임직원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p>2. 수용자 자녀 심리정서 지원 서명 캠페인 (2023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 수용자 자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홍보, 전화 모금을 위한 참여 DB 확보</li> <li>•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내 참여 페이지 개설 및 참여 플랫폼 '캠페인즈' 캠페인 개설, 시청각 콘텐츠 제작</li> <li>- SNS 및 페이스북 광고, 유관 카페 커뮤니티 대상 온라인 홍보</li> <li>- 서명참여 522 명, 뉴스레터 구독 67 명, 광고유입 444 건, 영상 조회 1,134 회, 채널 구독 50 명</li> </ul> </li> </ul> <p>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 (2023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 국제사회 아동권리 이슈를 연계하여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지지기반 확보, 협업 파트너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아이템 개발, 후원자 유치를 위한 잠재후원자 데이터베이스 확보</li> <li>• 진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든타임'을 주제로 홈페이지 및 캠페인즈 기반 서명 페이지 개설</li> </ul> </li> </ul>
-----------------------	--

- 유엔아동권리협약 '수용자 자녀' 지원 권고 내용 중심 홍보 영상 제작 및 홍보
- 국제 네트워크 (INCCIP, COPE) 홍보를 위한 영문 콘텐츠 제작, 배포
- 페이스북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
- 연세대 동아리 늘품, 1-5 디자인랩, 서울여대 앱 제작팀, 캠페인즈 등 외부 파트너 협업을 통한 서명 참여자 유치
- 집행 결과 : 서명 참여 723 명, 언론보도 1 건, 일시후원 19 명, 영상 조회 486 회

#### 4.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 Stand Firm 전시 (2023 년)

- 취지 : 2030 신규 타겟 대상 세움 인지도 제고, 오프라인 대면 만남을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 참여 확대
- 진행 사항
  - 8 월 22 일~9 월 1 일 2 주간, 팝업 전시공간 XXPRESS(마포구 포은로 99)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를 취지로 청소년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파트너 그룹 1-5 디자인랩과 전시 개최
  - 브랜딩 중점의 전시 디자인, 전시 굿즈, 초대권 배포, 언론 홍보 진행
  - 8 월 24 일~26 일 : 이상엽 작가의 '삼달다방' 북콘서트, 권준호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의 일상과 실천' 북토크, 1-5 디자인랩 전시 오프닝 등 오프라인 행사 3 회 진행
- 집행 결과 : 총 방문자 497 명, 현장 서명 참여 233 명, 후원약정 6 명

#### 5.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잠재후원자 DB 확보 (2024 년)

- 취지: 13 세 나이제한으로 인한 돌봄접건 제약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의 접견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진행
- 집행 결과
  - 홈페이지 내 참여 페이지 개설 후 메타 광고 및 크리스천 채널 '갯피플' 광고, 유관 카페 커뮤니티 대상 온라인 홍보
  - 10 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주최 행사 '휠더월드' 행사 부스를 통한 오프라인 서명 유치. 영등포타임스퀘어, 영등포공원 2 회 참여
  - 총 900 여명 참여 (온라인 참여 800 여명 , 서면 참여 100 여명)
  - 법무부, 국회 간담회에 참여한 6 개 국회위원실에 정책 변화 요청

#### 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 캠페인의 참가자 점점 확대 (2024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 2023 년 시작된 캠페인의 중장기적 이슈화와 참여자 접점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후원자 위치를 위한 잠재후원자 데이터베이스 확보</li> <li>•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자녀에 관심있는 대학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연계한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li> <li>- 5 월 중앙대학교 교내 부스 운영: 약 400 명 참여자 유치, 270 명 서명 참여</li> <li>- 9 월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부스 운영: 약 50 여명 참여자 유치</li> </ul> </li> </ul> <p>7. 청년 당사자자문단 작품 전시회 '화양연화: 어둠속에서 피어나다' (2024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청년 당사자 자문단 10 인이 직접 작가가 되어 수용자 자녀로서 회복과 성장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다양한 예술작품(음악, 영상, 시, 미술, 사진 등)으로 제작해 시민 대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li> <li>•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당사자자문단 10 인의 작품 26 점 전시</li> <li>- 4 월 6 일~19 일 2 주간 극동갤러리 전시회 개최, 방문자 약 500 명 방문, 후원자 50 여명 초청 오프닝 행사 진행을 통해 당사자자문단 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 언론보도 17 회</li> </ul> </li> </ul> <p>8.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Stand Firm Film Festa' (2024 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대학생 영상 재능기부를 통한 UCC 콘텐츠 콘테스트 확보, 시민 참여 투표를 통한 영상 접근성 향상으로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 콘텐츠 확산 강화</li> <li>• 집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츠 및 일반부문 영상 16 건 접수 및 네티즌 공개 투표를 통해 온라인 시상 진행</li> <li>- 샌드아트,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광고 영상 등 양질의 영상 콘텐츠 확보</li> </ul> </li> </ul> <p>9. 청년 당사자 자문단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출판 기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청년 당사자 자문단 4 기 10 인이 직접 집필한 에세이집을 출판함으로써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식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기획</li> <li>• 집행 결과</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년 5 월 31 일 출판기념회 진행</li> <li>- 약 100 여명의 후원자, 시민,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북콘서트와 저자사인회 등이 함께 진행되었음. 언론보도 6 건.</li> </ul>
--	--

#### 4. 네트워크와 조사연구

항목	내용
조사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자자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법인 온울과 공동연구 진행</li> <li>• 질적연구 : 수용자자녀 지원 전문가 및 당사자(양육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GI) 총 4 회 진행 후 주제분석 실시</li> <li>• 질적연구 결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용자자녀 지원 체계(안)을 제안하였으며, 바탕으로 (가칭) 수용자자녀지원법 법률안 작성 중</li> </ul> </li> <li>통합적 개별지원 슈퍼비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배영미 박사</li> <li>•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개별지원 아동의 욕구 및 이슈</li> <li>- 통합적 개별지원 과정 및 슈퍼비전 이슈 분석</li> </ul> </li> <li>•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비전 문헌고찰</li> <li>- 2020-2024 슈퍼비전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li> <li>- 기록 고찰(Document Review)</li> <li>- 전문가인터뷰(권역별 or 직급별 FGI 1회) 총 3회</li> </ul> </li> <li>• 연구결과: 수용자자녀 욕구 기반 통합적 개별지원 체계 및 발전방안 제시</li> </ul> </li> <li>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권지성, 홍진주, 이지선</li> <li>• 연구내용: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와 멘토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초기와 종결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평가</li> </ul> </li> </ol>



4.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청소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연구자 : 배영미, 이지선, 허은영
- 연구내용: 부모의 수감 후 미성년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청소년의 처한 환경과 생활 경험을 깊이 탐구하고 당사자 관점에서 실천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질적 사례연구
- 등재기관 : ISSN 2288-8799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5. 수용자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효과

- 연구자 : 이지선, 최려나, 허은영
- 연구내용: 찾아가는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제안
- 연구방법 : 단일집단 사전 사후 검사, 소감문(질적조사 자료 활용)
- 등재기관 : KCI 등재 사회과학연구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6. 수용자자녀를 위한 통합적 개별지원 슈퍼비전 연구

- 연구자 : 배영미
- 연구내용 : 수용자자녀 지원 현장에서 수행되는 '통합적 개별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 전문적 개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 개별지원의 효과성과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표준화된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연구방법 :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기록 분석, 참여관찰, 실무자 심층면접

7. 수용자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

- 연구자 : 권지성, 이지선, 홍진주
- 연구내용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수용자자녀의 심리·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멘토링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기술 변화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고,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양적조사(심리검사), 질적조사(멘티·멘토 소감문 및 인터뷰) 병행
- 등재기관 : ISSN 1226-1478 『청소년학연구』 KCI 등재

	<p>8.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이지선, 배영미, 전민경, 전규해</li> <li>• 연구내용 : 국내 수용자자녀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 규범 및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수용자자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 정책·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행체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계함.</li> <li>• 연구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입법례 비교분석, 초점집단인터뷰(FGI)</li> <li>• 등재기관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보고서</li> </ul>				
네트워크	<p>1. 국제수용자자녀 연합 INCC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이사회 진행 (격월 1 회 온라인 진행) / 세움 이사 임기 조정: 박경현 이사 연임</li> <li>• 콘텐츠 협력 : 뉴스레터 콘텐츠(대통령상 수상, 당사자자문단 전시) 공유</li> <li>• 4 월 INCCIP 웨비나 참석 : 미국 미셸오바마 보좌관 Chynna Clayton 당사자 스토리</li> <li>• 제 5 차 INCCIP 국제 컨퍼런스 개최 준비위원회 구성</li> <li>• 한국 측 준비위원회 구성</li> <li>- 위원장 : 윤현봉(전.브루나이 대사), 박경현(세움 감사, INCCIP 이사)</li> <li>- 실무위원 : 이진아(토론토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li> <li>- 개최 일정 확정 : 2025 년 7 월 1 일~4 일</li> <li>- 10 월부터 매달 INCCIP 준비위원들과 줌 회의 진행</li> </ul> <p>2. COPE(children of prisoner EU) : 네트워크 회원단체 유지</p> <p>3. 신규 국제 네트워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ld Right Connect</li> <li>-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세계 80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아동권리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li> <li>- 가입 자격 조건 인증 절차 진행 : 세움 기관 소개 및 가입 신청서 접수</li> </ul> <p>4. 파트너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및 기업</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브라이언 임팩트 재단</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수용자 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 구축사업</li> <li>- 조직별 스كر럼 온라인 미팅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li> <li>- 미래비전 워크숍(1월), 반기별 모임(6월, 11월), 성과공유회 (2회)</li> </ul> </td></tr> </tbody> </table>	기관	내용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수용자 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 구축사업</li> <li>- 조직별 스كر럼 온라인 미팅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li> <li>- 미래비전 워크숍(1월), 반기별 모임(6월, 11월), 성과공유회 (2회)</li> </ul>
기관	내용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수용자 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 구축사업</li> <li>- 조직별 스كر럼 온라인 미팅 (월 1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li> <li>- 미래비전 워크숍(1월), 반기별 모임(6월, 11월), 성과공유회 (2회)</li> </ul>				

		- 한국사회가치평가 임팩트 측정 미팅
	지엔엠 글로벌 문화재단	- 매월 1회 그랜티 PRS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 그랜티 PRS 오프라인 모임 - 가족상담프로그램, 당사자 활동,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고려아연	- 당사자자문단 3기 공동프로젝트 [화양연화] 전시회 참석 - 세움 사옥 이전 감사예배 및 바자회 행사 방문
	삼미재단, 그린 월드(경상)	- 성장지원비 결연, 반기별 결연 현황 보고 미팅
	이랜드복지재단	- 찾아가는 멘토링 사업, 긴급지원
	하나금융나눔 재단	- 찾아가는 멘토링 사업
	동행복지재단	- 아동 꿈 스케치 학원비 지원 - 청년 자립지원
	월드비전	- 상담, 긴급일시지원, 가족 회복프로그램 사업
	도이치뱅크	- 성장지원비 지원 - 사내 바자회 진행, 수익금 전액 후원 - 임직원 대상 추석 선물 포장 자원봉사
	선인장학재단	- 성장지원비 지원
	화인파트너스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성장비 지원
	이재모피자	-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사무실 공간 제공
	단빛재단	- 위기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규장, 갯피플	- 갯피플물 플로잉상품을 통한 정기적 물품 지원 - 유튜브 채널 롬팔이팔 참여 및 협력을 통한 후원자 연계
	한만두	- 참여자 가정 식료품 지원
	기타	- 듀이트리, 엘오케이, 매그니프, 꼬달리코리아, 컨셔스웨어, 신세계인터내셔널, 러쉬코리아, LF, 한국 시세이도, 아쿠아가든카페, 마녀공장, LAR, 대덕휴비즈, 업드림 코리아 - 바자회 행사 물품 지원
	• 법률관련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법인 두루 '온 마을 law' 지원 사업 , 위기수용자 자녀지원 제도 국회 간담회 참여</li> <li>- 세움 법률 자문단 (7 명 / 자문위원장 권순범 변호사)</li> <li>- 법무법인 율촌, 공익법인 온울과 공동 연구, 후원, 사업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 교정청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팀 정기미팅</li> <li>- 교도소 수용자 추천, 세움 관련 도서 발송</li> <li>- 교도관 신우회 세움 소개 및 추천, 도서 발송</li> </ul> </li> <li>• 유관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피빈, 체리, 알지 앱, 포스코 마리채 등 기부 모금함 개설 협업</li> <li>-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와 협약 체결</li> <li>- 지역 내 기업, 대학, 학교, 복지기관, 상담센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 인력의 개발을 통한 지지역사회 내 자원과 지지체계 구축</li> <li>- 시청, 군청, 행정복지센터, 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자원 연계를 통한 수용자 자녀 지지체계 형성</li> <li>- 로얄 코칭, 한국공익코칭협의회 : 진로 코칭 지원</li> <li>- 먹거리 나눔 운동 협의회 쌀 지원</li> </ul> </li> <li>• 종교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 롬팔이팔 : 세움 소개, 후원 모금 (사육 복합열림공간 리모델링비용, 경상권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등)</li> <li>- 갓피플 블러싱 캠페인: 참여자 간식, 생필품, 도서 후원</li> <li>- 프리즌 리바이벌 : 간식선물 세트</li> <li>- 함께하는 교회 :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협업 (공간, 운영비 지원)</li> <li>- 지역교회 : 선물지원, 장학금, 선물 포장 바자회 자원봉사 참여 등 신규 후원 교회, 종교 단체 후원 유치(16 개)</li> </ul> </li> </ul> <p>5. 위기 수용자자녀 지원 제도 국회 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4 년 11 월 20 일(수) 15:00~17:00</li> <li>•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li> <li>• 공동 주관 : 박지원, 나경원, 서영교, 한정애, 김남희, 이건태 의원</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 전문가 / 이지선교수(세움 연구소 소장), 강정은 변호사 (공인법재단 두루),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울) 관계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참여</li> <li>•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국내외 해외법 사례를 통해 위기수용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 (40 여명 참석)</li> </ul>
INCCIP 국제 컨퍼런스	<p>1. 당사자인 수용자 자녀의 목소리 확대 및 인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INCCIP 국제 컨퍼런스는 수용자 자녀 당사자들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주체적 발화자로 설 수 있도록 진행됨. 총 13명의 국내외 당사자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 사회적 시선 속에서의 내면 변화와 회복 과정을 발표 세션에서 나누었으며, 특히 이 중 6명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서 활동 중인 청년 당사자 자문단 청년들로, 한국 대표 당사자로서 기조연설, 발표세션, 국회포럼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음. 발표 주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어려움, 교육과 사회 관계에서의 낙인,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 등이었으며, 일부 청년은 발표 후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며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음.</li> <li>• 당사자 청년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실제 행사 이후 "당사자들의 발표가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또한 청년들은 세움 실무자들과 발표 준비 워크숍에 참여하고, 발표 내용을 정제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여정을 겪었습니다.</li> <li>•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실제 목소리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정책 및 공적 담론의 장에 직접 반영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 특히 7월 2일 국회포럼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자녀의 현실에 대한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음.</li> <li>• 컨퍼런스 이후 언론 보도 및 학술적 분석에서도 당사자 참여 기반 컨퍼런스로서의 INCCIP 2025 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실제 청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사들이 배포되었음. 관련 보도에서는 당사자 목소리의 공공성, 회복 가능성, 정책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번 컨퍼런스는 단지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곧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국내외 실천가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심는 계기로 기능하였음.</li> </ul> <p>2. 연구조사 발표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전략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INCCIP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총 37 건의 발표 중, 10 건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제안형 연구로 구성됨. 해당 발표들은 국내외 다양한 맥락에서 수용자 자녀들이 처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li> </ul>

- 그중 4 건은 수용자 자녀의 심리·정서 상태, 교육 접근성, 낙인 경험,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건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교육복지, 정신건강 서비스 내의 제도적 공백과 접근 제한성을 다룬 분석 연구로, 현행 체계 내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 조정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나머지 3 건은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 아동 권리 관점의 개입 모델, 가족 중심 케어 전략 등을 중심으로 제안되었으며, 법·제도·현장 서비스 간의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
  - 이러한 발표들은 각기 사회복지학, 형사정책, 아동권리, 국제인권 등의 전문분야에 기반한 국내외 학자와 NGO 실천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진행하였으며, 실증적 자료와 현장 기반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는 전략을 제시함.
  - 7 월 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포럼에는 총 98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백선희 의원, 그리고 수용자 자녀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수용자 자녀 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음.
  - 국회포럼에서는 국내외 연구자 발표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고, 한국 법체계 내 수용자 자녀 관련 규정의 부재와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 심의 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이 검토될 예정임.
3.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권리옹호 생태계 확장
- 2025 INCCIP 컨퍼런스는 전 세계 수용자 자녀 지원 현장의 흐름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본 행사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총 11 개국(대한민국, 대만,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에서 온 공식 참가자 약 80 여 명이 함께했으며, 각국의 NGO,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정책, 실천, 연구가 교차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형성되었음.
  - 특히 INCCIP 이사진 및 회원기관 관계자 20 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실제 연대 구축의 파트너로서 교류가 이루어짐. 참가자 중 다수는 오랜 기간 자국 내 혹은 국제적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 활동을 이끌어온 전문가들이며,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의 제도 운영 방식, 실천적 난점,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한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짐.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음. 영국의 범죄사회학 연구기관 SCCJR, 대만의 CHING HAN Foundation, 인도의 India Vision Foundation 등

	<p>여러 주요 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단체는 발표 세션 이후 이어진 이사회 모임이나 비공식 네트워킹을 통해에서, 현장 프로그램 연계, 공동연구, 국제 캠페인 연합 등의 협업 가능성을 탐색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움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단일 국가의 활동을 넘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적 권리옹호 생태계 안에서 공동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협력 주체로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었음.</li> </ul>
--	--





## 5. 준비위원회 및 기조연설자 명단

### - 준비위원회

	이름	소속, 직책
1	Hyeonbong Yoon	준비위원장, 전 부르나이 대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2	낸시 Nancy Loucks	INCCIP 이사장/ 준비위원 케임브리지대학교 범죄학 연구소 박사, NGO 아웃사이드 패밀리 대표
3	Avon Hart Johnson	INCCIP 이사 / 준비위원, NGO CD 프로젝트 커넥트 대표
4	Benjamin Raikes	INCCIP 이사 / 준비위원, 허더스필드대학교 교수
5	Smita	INCCIP 이사 / 준비위원
6	Catalina Lgnacia	INCCIP 이사 / 준비위원
7	Hamaed Farmand	INCCIP 이사 / 준비위원, 아동권리운동가, NGO Children of Imprisoned Parents Internation 대표
8	Kyenogrim Lee	준비위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
9	Kyeonghyun Park	INCCIP 이사 / 준비위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감사, 전 학교사회복지사
10	Jina Lee	준비위원, 사회학 박사 수료(범죄학 전공)

### - 기조연설자

	이름	소속, 직책
1	안민정	세움 청년 자문단
2	오타니 미키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전 위원장) 국제인권법 전문가,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관련 국제 활동
3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움연구소 소장
4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5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이사
6	Julie Poehlmann-Tynan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교수
7	Koen Sevenants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ODC 수용자 인권 및 아동 보호 프로그램 책임자
8	Rachel Brett	전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앰네스티, 퀴커 유엔사무소(QUNO) 활동가 수용자 자녀 관련 UN 아젠다 확산 기여, 국제 인권 옹호 전문가

6. 행사 스케줄 및 발표자 주제

Time	Sessions		
9:30-10:00	<p><b>Welcome</b></p> <p><b>Opening Ceremony</b>  <b>Kyung-Lim Lee (SEUM)</b>  <b>Nancy Loucks (INCCIP)</b></p> <p><b>Plenary 1</b>  <b>Young Person with incarcerated parents (Korea)</b></p>		
10:00-10:30	<p><b>Plenary 2</b>  <b>Mikiko Otani</b>-Call for a holistic child rights approach t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p>		
10:30-11:00	Morning Tea		
11:00-12:30	<p><b>Symposium 1</b></p> <p><b>1. Monica Dhawan (India)</b>-<i>Children of Vulnerable Families - Travails and Triumphs</i>  <b>2. Nancy Loucks /Ben Raikes (UK)</b>-ASPIRE: Improving Wellbeing and Educational Outcomes for Children in Wales Affected by Parental Imprisonment</p>	<p><b>Papers 1</b></p> <p><b>1. Jan Høltge (Canada)</b>-<i>Context Shapes the Experience of Parental Incarce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Resilience Mechanisms in Youth from Canada and South Africa</i>  <b>2. Miaomiao He (Australia)</b>-<i>The impact of witnessing parental arrest on children: A scoping review</i></p>	<p><b>Workshop 1</b></p> <p><b>1. Charlotte Robertson (New Zealand)</b>-<i>Teachers' role supporting children of prisoners</i>  <b>2. Chaeyeon Songyi Han, So Hee Kim, Na Eun Kim, Yunseo (Louisa) Kim, Myungjin (David) Oh, Yoonjae (Ashley) Na (Korea)</b>-Beyond the Stigma: Elevating Awareness for Children Affected by Parental Incarceration</p>
12:30-13:30	Lunch		

13:30-15:00	<b>Symposium 2</b> <b>1. Bahiyyah Muhammad, Jaelah Muhammad, Jian Muhammad, Muntaquim Muhammad (USA)-Project Iron Kids: Working to Empower You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with Coloring Parties and the Prison Alphabet</b> <b>2. Hiroko Goto (Japan)-The Rights of Children of Prisoners in Japan</b>	<b>Papers 2</b> <b>1. Catherine Flynn (Australia)-Living with a parent in prison: learning from young people</b> <b>2. Megan Bell (Australia)-Multiple risks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s</b>	<b>Workshop 2</b> <b>Lorna Brookes (UK)-That Girl: A drama inspired by real life stories about a girl whose mother goes to prison.</b>
15:00-15:30	Afternoon Tea		
15:30-16:30	<b>Plenary 3</b> <b>1. Young-sik Kim (Korea)-Rehabilitation of Inmates Begins with Family Restoration</b> <b>2. Sung-Taek Lim (Korea)-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The Korean Perspective</b>		
16:30-18:00	<b>Special : Korean Session</b> <b>Welcome: Inyong Rhee (Chairperson of Onyul)</b> <b>1.Jee-youn Lim (Korea)-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metaverse-based education platform (MEP) for diverse families and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 Case of School Classes</b> <b>2. Hye-Sun Um (Korea)-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Families of Inmates: A Case Study of the SeumON Counseling Center (2019–2025)</b> <b>3. Ki-Chul Han (Korea)-Plays and relationship skills that open children's minds</b> <b>4. Sujin Kim (Korea)- Beyond Protection, Toward Restoration: A Policy and Social Impact Analysis of the Child Welfare Organization 'SEUM'</b> <b>Interpretations will be provided for the Q&amp;A session</b>		
<b>Wednesday, 2 July 2025</b>			
<b>Time</b>	<b>Sessions</b>		
9:00-11:00	<b>Young Adults Session</b> <b>(Young Adult Participants Raise Their Voices)</b>		
11:00-11:30	Morning Tea		

11:30-12:30	<b>Symposium 3</b> <b>Yung Prodigy (Australia)</b> -Nothing About Us Without Us: Youth-Led Solutions to Parental Incarceration	<b>Papers 3</b> <b>1. Ben Raikes (UK)</b> - <i>The Experienc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tate Care with a Parent in Prison</i> <b>2. Lorna Brookes (England)</b> - <i>"Collateral damage"? Open court reporting and its impact on the children of defendants</i>	<b>Workshop 3</b> <b>Bahiyyah Muhammad (USA)</b> - <i>Centering COIP Expert Narratives: Allowi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To Tell Their Own Stories of Success</i>
12:30-13:30	Lunch		
13:30-14:30	Move to National Assembly		
15:00-17:30	<b>Forum at National Assembly</b>	<p><b>15:00–15:20</b></p> <p>&lt;National Anthem &amp; Opening Ceremony&gt;  Welcoming Remarks:  • Hon. Jeongae Ha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Director Genera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Nancy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Partners)</p> <p>Congratulatory Remarks:  Hon. Wonsik Woo,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Hon. Park Jumin, Chai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Hon. Seo Young-kyo, Memb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tional Assembly</p> <p>Introduction of Honorary Guests</p> <p><b>15:20–15:30</b></p> <p>&lt;Commemorative Group Photo &amp; Seating Arrangement&gt;</p> <p><b>15:30–16:30</b></p> <p>&lt;Keynote Presentations&gt;  Moderator: To be arranged by a Member's Office  Chair: Prof. Kyungsoo Park (Dept. of Social Welfare, Hanyang Cyber University)</p> <p>(1) Dr. Mikiko Otani-Call for a holistic child rights approach t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2) Dr. Rachel Brett – International human rights jurisprudence on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law and its use to advance their rights  (3) Prof. Jisun Lee – Findings o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in Korea  (4)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Overview of Korea's Policy Landscape</p>	

	<b>16:30–17:00</b> Panel Discussion & Q&A Session		
17:30-evening	Dinner at National Assembly (Cafeteria)		
<b>Thursday, 3 July 2025</b>			
<b>Time</b>	<b>Sessions</b>		
9:00-10:30	<b>Symposium 4</b>  <b>1.Lorna Brookes (England)-</b> Witnessing the arrest of a parent. The experienc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what law enforcement officers can do to help minimize their trauma <b>2.Kelly Lockwood (England) -</b>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hildren with a parent in prison with whom they have limited or no contact <b>3.Brenda Robinson &amp; Judge Marguerite D. Downing (USA)-</b> Teamwork Makes the Dream Work: A Collaborative Approach for Families with an Incarcerated Parent	<b>Papers 4</b> <b>1.Christina Bellasalma (USA)-</b> <i>From Incarceration to Reentry: A Holistic Approach to Creating a Better Future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Families, and Communities</i> <b>2.Katie Kramer (USA)-</b> Being the Father Our Children Need: Program Overview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Dads Back! program in Los Angeles, California	<b>Workshop 4</b> <b>1. Rachna Narwekar (India)-</b> Nanhe Kadam: Building Safer Prisons and Advancing Holistic Development for Children in Custodial Settings
10:30-11:00	Morning Tea		
11:00-11:30	<b>Plenary 4</b> <b>Julie Poehlman-</b> Centering the Child: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al Incarceration in 5 Countries		
11:30-12:00	<b>Plenary 5</b> <b>Koen Maurice Sevenants-</b> From Prison Walls to Childhood Scars: Rethinking Root Causes in Child Protection		
12:00-13:00	<b>Lunch(INCCIP Member's Meeting)</b>		

13:00-14:30	<p align="center"><b>Symposium 5</b></p> <p><b>1. Lina Cui (Korea)</b>-Social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p> <p><b>2.Tzu-Wei Lin (Taiwan)</b>-Considering the Rights of Defendants' Minor Children in Criminal Sentencing: Insights from Taiwan's Experience</p> <p><b>2. Bahiyyah Muhammad, Jaelah Muhammad (US)</b>- Highly Successful Educational Experiences Among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p>	<p align="center"><b>Workshop 5</b></p> <p><b>Lorna Brookes (UK)</b>-8 <i>Hours There and Back</i></p>
14:30-16:00	<p align="center"><b>Symposium 6</b></p> <p><b>1. Megan Capp (Canada)</b>-Consider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hen Sentencing Parents - Lessons from British Columbia</p> <p><b>2. Catherine Flynn (Australia)</b>-Mapping the needs and experiences of children affected by parental imprisonment: Findings from an Australian survey</p> <p><b>3. Jan Höltge (Canada)</b>-Resilience is Not Their Responsibility: Reflections from an Intersectoral Conference About What Fosters the Resilience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p>	<p align="center"><b>Workshop 6</b></p> <p><b>1. Deborah L.K. Spencer-Chun (USA)</b>-<i>Redirectional Therapy: An Approach to Reduce the Risk of Future Offending and Incarceration</i></p> <p><b>2. Sandra Barnhill (USA)</b>-<i>Navigating Challenges with Strength: A Resilience Workshop on Developing Programming for Children Impacted By Parental Incarceration</i></p>
16:00-18:00	<p><b>Afternoon Tea/Conference Closing</b></p> <p>Nancy Loucks(INCCIP)/ Ambassador Hyun-Bong Yoon (SEUM)</p>	

Friday, 4 July 2025	
Time	Sessions
08:00-18:00	<p align="center"><b>Field Trip to Correctional Institution</b></p> <p align="center">8:00 Leave Venue</p> <p align="center">10:00 Yeosu Correctional Institution</p> <p align="center">1:00 Somang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p> <p align="center">3:00 Head back to Seoul</p>

#### 7. 후원 및 협력기관

- 후원 기관: 임팩트그라운드, 고려아연, 삼미건설, 법무법인 지평, 삼성생명, 사단법인 온을, 메이크프렘, 이랜드재단, 대한한복, 기부플랫폼 체리
- 협력 기관: 대한민국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제교류재단

## 8. 행사 진행사진



- 컨퍼런스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경림 대표



- 낸시 룩스(우, INCCIP 대표)와 줄리 포엘만(좌, 기초연설자)



- 7월 2일 국회포럼 주최자 및 발제자 단체사진



- 폐회식에 참석한 이경림 대표(좌)와 스미타(우, INCCIP 이사)



- 폐회식 단체사진



### III.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상근인력 업무 및 성과

직책	재직 연도	주요 업무	성과 요약
권역사업 총괄 부장	2022~2025	권역별 사업 총괄 관리	권역별 센터 성과 관리, 통합적 개별지원 표준화, 사례회의·슈퍼비전 지원, 성과 보고 총괄
경상권 센터장	2022~2024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총괄	지역 내 신규 사례 발굴과 정기지원 체계 안정화, 위기지원 및 가정방문 관리, 권역 네트워크 기반 확립
경상권 간사 / 팀장	2022~2025	경상권 사례관리 및 멘토링 지원	위기 가정 긴급 개입, 정기 가정방문과 성장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
경상권 간사	2024~2025	사례관리 및 현장 지원	신규 사례 가정방문 및 성장지원비 지원, 참여 아동 라포 형성
충청권 센터장	2023~2025	충청권 센터 설립 및 운영 총괄	위탁 운영 모델 정착, 대학생 멘토링·체험활동 운영, 긴급지원 체계 구축,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장
충청권 간사	2023~2024	충청권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신규 가정 발굴 및 맞춤형 개별지원, 위기 상황 개입, 지역 네트워크 연계
전라권 간사	2022~2023	전라권 사례관리	초기 사례 발굴 및 지역 네트워크 접촉, 전라권 사업 기반 마련
전라권 간사	2023~2024	전라권 사례관리	가정방문 및 신규 발굴 확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참여자 라포 형성
사례관리 간사	2022~2024	개별지원 및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면회지원, 사례회의 참여, 긴급 개입 관리
디지털사업 팀장	2023~2024	디지털 전략·캠페인 총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운영, 후원자 DB 관리, 디지털 홍보 전략 확립
인식개선 담당 간사	2023~2024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유튜브·블로그 홍보 콘텐츠 제작, 캠페인 홍보물 운영
후원 담당 간사	2023~2025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담당	온라인 후원 캠페인 운영, 신규 후원자 모집 및 관리

## IV. 언론보도 및 온라인 활동

### 1. 언론보도

	날짜	출처	제목	URL
1	2022-03-08	경향신문	'범죄자 자식'이 된 아이, 기댔 곳은 '운'밖에 없었다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080600001">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080600001</a>
2	2022-05-01	보리출판사	어린이와 참삶 : 아이들이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a href="#">지면인터뷰</a>
3	2022-06-09	채널예스	이지선 “불행이 꼭 불행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 꽤 괜찮은 해피엔딩	<a href="http://ch.yes24.com/Article/View/50930">http://ch.yes24.com/Article/View/50930</a>
4	2022-06-19	주간조선	숨겨진 피해자들... 연 5 만 4000 명 수용자 자녀가 위험하다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9/VQUAXN34WZAZNET5QOCAKAMYZ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9/VQUAXN34WZAZNET5QOCAKAMYZ4/</a>
5	2022-08-01	연합뉴스	부산지검, 발달장애인 등 형사 취약계층 지원 잇따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132800051?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132800051?input=1195m</a>
6	2022-08-01	더팩트	부산지검, 약자 위한 형사사법 제도 시행...'인권 보호'	<a href="http://news.tf.co.kr/read/national/1955587.htm">http://news.tf.co.kr/read/national/1955587.htm</a>
7	2022-08-01	뉴스 1	부산지검, 발달장애인·수용자 자녀 등 취약계층에 형사사법 지원 활성화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759669">https://www.news1.kr/articles/4759669</a>
8	2022-08-02	부산 MBC (뉴스)	부산지검, 31 건 형사 취약계층 보호 조치	<a href="https://busanmbc.co.kr/article/JfASflhzCJrO32v4">https://busanmbc.co.kr/article/JfASflhzCJrO32v4</a>
9	2022-11-06	부산일보	복지 사각, '재소자 미성년 자녀', 사회안전망 통해 보듬어야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0618224169680">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0618224169680</a>
10	2022-11-07	국제신문	부산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하는 네트워크 발족	<a href="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amp;key=20221107.99099001935">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amp;key=20221107.99099001935</a>
11	2022-11-10	부산일보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세움온 개소기념 세미나 열려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1015545275799">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1015545275799</a>
12	2022-11-10	국제신문- 뭐라노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져요	<a href="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0300&amp;class_cd=320100&amp;key=20221110.99099003053">http://www.kookje.co.kr/contents/newsbody.asp?code=0300&amp;class_cd=320100&amp;key=20221110.99099003053</a>
13	2022-11-10	국제신문	범죄자 자식 낙인...사회적 고립 수용자 자녀 신속 지원을	<a href="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amp;key=20221111.33008003162">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amp;key=20221111.33008003162</a>
14	2023-11-18	굿모닝충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메타버스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a href="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861">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861</a>
15	2022-11-21	아이굿뉴스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 자녀를 당당히 일으켜 세웁니다"	<a href="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391">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391</a>
16	2023-11-22	고신뉴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메타버스 학습놀이터 구축	<a href="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8">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8</a>
17	2022-11-28	부산경남 KNN	[인물포커스] -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a href="http://www.knn.co.kr/267621">http://www.knn.co.kr/267621</a>

18	2022-12-30	데일리굿뉴스	"인류 사랑하는 예수처럼"...세움, 수용자 자녀 지원 앞장	<a href="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24">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824</a>
19	2023-01-10	머니투데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수용자 자녀 도우니 재복역률 25→6%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61351075896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613510758961</a>
20	2023-01-10	더나은 미래	세상을 위해 베풀하라	<a href="https://futurechosun.com/archives/71598">https://futurechosun.com/archives/71598</a>
21	2023-03-01	중앙일보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의 올림 "난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020">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020</a>
22	2023-04-19	한국일보	마약 소년의 옥중서신, "아빠 무지무지 사랑해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910470003200?did=NA">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41910470003200?did=NA</a>
23	2023-05-25	대한경제	울촌·온울, '수용자 자녀 지원'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a href="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5251749018700634">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5251749018700634</a>
24	2023-05-25	이데일리	범무법인 울촌,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에 바자회수익 전액기부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328663561252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328663561252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
25	2023-05-26	아주경제	[로펌 라운지] 울촌, 공익 바자회 수익금 전액 수용자 자녀에 기부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30526093619894">https://www.ajunews.com/view/20230526093619894</a>
26	2023-05-26	조세일보	울촌·온울, 수용자 자녀 지원 위해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a h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5/20230526487843.html">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5/20230526487843.html</a>
27	2023-05-26	법조신문	[로펌소식] "수용자 자녀 지원"... 울촌-온울, 900 만원 기부	<a h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526">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526</a>
28	2023-05-29	서울경제	[로터리] 수용자 자녀를 향한 불편한 시선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NJG0IM">https://www.sedaily.com/NewsView/29PRNJG0IM</a>
29	2023-05-30	리걸타임즈	[로펌 In] 울촌,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03">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03</a>
30	2023-06-05	웰페어이슈	세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 본격화	<a href="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0">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0</a>
31	2023-06-06	국민일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성경말씀] 어머니 축복의 유언 '겸손과 온유' 늘 품고 살아	<a h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5857&amp;code=23111413&amp;cp=nv">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5857&amp;code=23111413&amp;cp=nv</a>
32	2023-06-07	로이슈	천안개방교도소,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상 참관 시행	<a href="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60718330973749a8c8bf58f_12">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60718330973749a8c8bf58f_12</a>
33	2023-06-12	지식채널 e	부모가 지은 죄로 고통 받는 아이들 I 나는 죄가 없어요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zcsbaRMVE">https://www.youtube.com/watch?v=HzcsbaRMVE</a>
34	2023-06-19	EBS 뉴스	부모 수감 뒤 '복지 사각' 놓인 아이들...발굴도 한계	<a href="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61467/N">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61467/N</a>
35	2023-08-24	데일리굿뉴스	편견과 상처로 멎은 '수용자 자녀'...미술로 내면 표현해	<a href="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57">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57</a>
36	2023-08-24	크리스천투데이	세움, 청소년들과 수용자 자녀 인식 개선 전시회 개최	<a href="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6413">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6413</a>
37	2023-08-24	서울일보 ESG	수용자 자녀 생각해본 적 있나요? 망리단길에 모인 문화예술 인권 활동가들	<a href="https://www.seoulilbo.news/news/articleView.html?idxno=2936">https://www.seoulilbo.news/news/articleView.html?idxno=2936</a>
38	2023-08-24	국민일보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망리단길 중심에서 당당함을 외치다	<a h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98554&amp;code=61221111&amp;cp=nv">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98554&amp;code=61221111&amp;cp=nv</a>

39	2023-08-25	국민일보	편견·낙인 딛고... 수용자 자녀들이 당당히 서도록	<a h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7865&amp;code=23111311&amp;cp=nv">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7865&amp;code=23111311&amp;cp=nv</a>
40	2023-08-28	중대신문	어둠 속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	<a href="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https://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a>
41	2023-09-05	아이굿뉴스	"수용자 자녀들이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 꿈 꿔요"	<a href="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014">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4014</a>
42	2023-09-29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초등학생 딸의 머리 한올한올 땀아주는 엄마의 눈물	<a href="https://m.yna.co.kr/view/AKR20231019152700505?site=longstay_news">https://m.yna.co.kr/view/AKR20231019152700505?site=longstay_news</a>
43	2023-10-24	연합뉴스	"엄마, 나 살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죽지 말아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031900505">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031900505</a>
44	2023-10-27	월요신문	[칼럼] 우리가 꼭 안아줘야 할 아이들	<a href="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27">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27</a>
45	2023-10-27	연합뉴스	엄마 품이 가장 좋은 환경... 엄마와 수감 생활하는 갓난아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1000400505?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31021000400505?input=1195m</a>
46	2023-11-07	국민일보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위해 반드시 민관 협의체 필요"	<a h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8773&amp;code=61221111&amp;cp=nv">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8773&amp;code=61221111&amp;cp=nv</a>
47	2023-11-13	연세춘추	어려움을 딛고 수용자 자녀를 일으켜 '세움'	<a href="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0">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0</a>
48	2023-11-13	뉴스1	"함께여서 재미있어"...가족 메타버스 활동 선호도 1 위 '방탈출'	<a href="https://www.news1.com/view/?id=NISX20230927_0002467000&amp;cID=10201&amp;pID=10200">https://www.news1.com/view/?id=NISX20230927_0002467000&amp;cID=10201&amp;pID=10200</a>
49	2024-03-27	크리스천투데이	세움, 수용자 자녀 10 인 작품 전시회 개최	<a href="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0689">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0689</a>
50	2024-03-28	국민일보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40765&amp;code=61221111&amp;cp=nv">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40765&amp;code=61221111&amp;cp=nv</a>
51	2024-04-09	연합뉴스	고려아연, '수용자 자녀 창작 전시' 화양연화 후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409071400003?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40409071400003?input=1195m</a>
52	2024-04-10	국민일보	고려아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전시 후원... "계속 응원 지지할 것"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2650420&amp;code=11151400&amp;cp=nv">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2650420&amp;code=11151400&amp;cp=nv</a>
53	2024-05-03	뉴스 1	복지부, 어린이날 앞두고 기념식 열어...아동 복지 유공자 14 명 포상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04927">https://www.news1.kr/articles/5404927</a>
54	2024-05-05	연합뉴스	[삶·특집] "아이들을 내놓을리 없습니다...그들에게는 돈이니까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504023900505?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40504023900505?input=1195m</a>
55	2024-05-05	연합뉴스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504023951505?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40504023951505?input=1195m</a>
56	2024-06-21	뉴스퀘스트	고려아연, '세움'과의 10 년 인연...수용자 자녀 등 소외계층 지원 이어간다	<a href="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29">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29</a>
57	2024-06-21	일간스포츠	고려아연, 아동복지단체 세움 신사옥 행사 참석...10 년 지원 성과	<a href="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6210110">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6210110</a>

58	2024-06-21	에너지 신문	고려아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집들이 바자회' 참석	<a href="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93">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93</a>
59	2024-06-28	더나은미래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사각지대 해법 찾기②수용자 자녀]	<a href="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92687">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92687</a>
60	2024-07-04	고신뉴스	아이들이 자유로운 '세움'만의 기쁨 공간 마련되다	<a href="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78">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78</a>
61	2024-07-23	더나은미래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사각지대 해법 찾기]	<a href="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95111">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95111</a>
62	2024-09-01	이대학보	[이화랑 연구할랩(Lab)] 수용자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다,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a href="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5">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5</a>
63	2024-09-13	쿠키뉴스	감옥에 갇힌 부모, 빈곤에 갇힌 자녀 [위기의 수용자 자녀①]	<a href="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130161">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130161</a>
64	2024-09-14	쿠키뉴스	연좌제의 그늘...흘러가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위기의 수용자 자녀②]	<a href="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140036">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140036</a>
65	2024-09-15	쿠키뉴스	'범죄자 자녀' 낙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위기의 수용자 자녀③]	<a href="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140037">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140037</a>
66	2024-10-15	중앙일보	[라이프 트렌드&]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 위해 ... 학계·법조계 등과 법적·제도적 해법 마련 논의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305">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305</a>
67	2024-11-07	중앙일보	[더버터] 피해와 처벌, 범죄 이면에 소외된 아이들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23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234</a>
68	2024-11-18	베이비 뉴스	여야 국회의원 6 명,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제도 국회 간담회 20 일 개최	<a href="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50">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50</a>
69	2024-11-20	한스경제	[포토]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에 여·야 한마음	<a href="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006">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006</a>
70	2024-11-20	뉴시스	자녀 있는 수용자 □ 5 만 4 천명..."70%가 부모 감옥 간 것 몰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695">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695</a>
71	2024-11-21	더나은 미래	"수용자 자녀 1 만 3000 명... 미취학 아동만 24%" 위기 아동 지원 대책 절실	<a href="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107888">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107888</a>
72	2024-12-11	고신뉴스	<미소> 수용자 자녀 위한 지원 활동한다. '세움'	<a href="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4">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4</a>
73	2024-12-19	기독교신문	[사랑의실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a href="http://www.gdknews.kr/m/page/view.php?no=17376">http://www.gdknews.kr/m/page/view.php?no=17376</a>
74	2025-01-23	소셜임팩트뉴스	시민과 함께 뽑은 '2025 소셜임팩트 어워드' 개최..소셜벨류랩·세움·삼성전기·선 수상	<a href="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3">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3</a>

75	2025-02-18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a href="https://futurechosun.com/archives/114556">https://futurechosun.com/archives/114556</a>
76	2025-02-20	중앙일보 더버터	[더버터] 비영리가 추천하고 시민이 뽑는다...'제 1 회 소셜임팩트어워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26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261</a>
77	2025-04-14	웰페어이슈	세움-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a href="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9">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9</a>
78	2025-05-31	로이슈	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53121474555949a8c8bf58f_12">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53121474555949a8c8bf58f_12</a>
79	2025-06-02	CBS 노컷뉴스(방송)	[새로나온 책] 기억함의 용기 -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Ic93TTWLZM">https://www.youtube.com/watch?v=aIc93TTWLZM</a>
80	2025-06-09	주간기독신문	[북앤북스] 수용자 자녀들이 쓴 성장 여정	<a href="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256">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256</a>
81	2025-06-09	데일리굿뉴스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편견·낙인 딛고 세상 속으로	<a href="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07">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07</a>
82	2025-06-13	국민일보	[새로 나온 책] 기억함의 용기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9698689">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9698689</a>
83	2025-06-25	더퍼블릭	단빛재단, 세움과 수용자 자녀 생계·교육 지원 나선다	<a href="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7950">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7950</a>
84	2025-06-20	더나은미래	수용자 자녀 권리 보장 위한 국제 학술대회,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	<a href="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5335">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5335</a>
85	2025-06-21	한겨레 텍스트	'수용자 자녀'인 나, 글로 쓰고 나서 마주하게 됐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03941.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203941.html</a>
86	2025-06-23	베이비뉴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10 주년 맞아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최초로 서울서 개최	<a href="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115">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115</a>
87	2025-06-23	법률미디어 온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 월 서울 첫 개최...13 개국 참가 예정	<a href="https://www.lawmedi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https://www.lawmedi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a>
88	2025-06-24	법률미디어 온	수용자 자녀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개최...정책 확장 발판 기대	<a href="https://www.lawmedi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https://www.lawmedi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a>
89	2025-06-25	법률미디어 온	[인터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우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오길..."	<a href="https://www.lawmedi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https://www.lawmedi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a>
90	2025-06-21	소셜임팩트뉴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10 주년,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 월 1 일 서울서 개최	<a href="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7">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7</a>
91	2025-06-26	소셜임팩트뉴스	수용자 자녀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7 월 2 일 개최	<a href="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a>
92	2025-06-26	내외일보	한정애 의원,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제고'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개최	<a href="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524">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524</a>
93	2025-06-27	로이슈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 월 1 일 서울서 개막	<a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2714342784669a8c8bf58f_12">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62714342784669a8c8bf58f_12</a>

94	2025-06-29	핀포인트뉴스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 제고'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a href="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558">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558</a>
95	2025-06-20	C 채널 굿데이(방송)	[이슈포커스] 부모의 수감 생활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 최윤주 사무총장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si=GfyOhFU4meQKshhe&amp;v=gzlb7SXl7YQ&amp;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si=GfyOhFU4meQKshhe&amp;v=gzlb7SXl7YQ&amp;feature=youtu.be</a>
96	2025-06-27	소셜임팩트뉴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단빛재단,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 협약 체결	<a href="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1">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1</a>
97	2025-07-03	CBS 노컷뉴스(방송)	1 만 4 천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법 마련 촉구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64490">https://www.nocutnews.co.kr/news/6364490</a>
98	2025-07-02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a href="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5959">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5959</a>
99	2025-07-02	데일리굿뉴스	"죄 지은 건 부모인데"...수용자 자녀 '권리'는 어디	<a href="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204">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204</a>
100	2025-07-02	뉴시스	2025 INCCIP 제 4 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I20250702_0020873242">https://www.newsis.com/view/NISI20250702_0020873242</a>
101	2025-07-11	베이비뉴스	수용자 자녀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확인	<a href="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79">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79</a>
102	2025-07-24	매일일보	2025 INCCIP 국제컨퍼런스 참가자, 여주교도소 참관	<a href="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926">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926</a>
103	2025-07-30	한국성결신문	이사람-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간사 이인선 청년(예수향교회)	<a href="https://www.ke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0">https://www.ke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0</a>
104	2025-08-04	한국일보	빈곤과 사회적 낙인에 두 번 우는 아이들... '위기의 수용자 자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08330003595">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08330003595</a>
105	2025-08-04	한국일보	"왜 수용자 자녀 돕냐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08330001919?did=NT">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08330001919?did=NT</a>

## 2. 유튜브 세움 TV 배포

	내용	링크
1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이야기 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RlbSKYIKAs">https://www.youtube.com/watch?v=RRlbSKYIKAs</a>
2	김남호 대표의 세움 리브랜딩 이야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vJtnJY8LRo">https://www.youtube.com/watch?v=SvJtnJY8LRo</a>
3	김자유 대표의 데이터와 비영리 이야기 박수미 대표의 홈페이지 이야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NYCIftgNq4">https://www.youtube.com/watch?v=SNYCIftgNq4</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ZzYY7jhxi8">https://www.youtube.com/watch?v=3ZzYY7jhxi8</a>
4	김도영 교도관 특집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nvQWeevL7U">https://www.youtube.com/watch?v=ZnvQWeevL7U</a>
5	황지혜 후원자 이야기 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h_IwVB6dYM">https://www.youtube.com/watch?v=5h_IwVB6dYM</a>

6	이재영 원장의 회복적 정의 시리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DTkDwlYd1c">https://www.youtube.com/watch?v=HDTkDwlYd1c</a>
7	이지웅 대표의 당당함을 향한 질주 시리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mK-tPk2WTA">https://www.youtube.com/watch?v=PmK-tPk2WTA</a>
8	세움의 숨은 공신, 자원봉사자 2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ruHugTO3AU">https://www.youtube.com/watch?v=LruHugTO3AU</a>
9	사람을 연결하는 삼달다방 '이상엽 작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tuDAyES3xw">https://www.youtube.com/watch?v=StuDAyES3xw</a>
10	자립준비청년 사회적기업가 '김성민 대표'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PBmwT6PBiI">https://www.youtube.com/watch?v=VPBmwT6PBiI</a>
11	수용자 자녀로 일어난 목사 '온기섭 목사'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7ArJyD9KpE">https://www.youtube.com/watch?v=Y7ArJyD9KpE</a>
12	이지선 교수가 이야기하는 수용자자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bDhNoZXfQA">https://www.youtube.com/watch?v=NbDhNoZXfQA</a>
13	송은이 대표의 세움 비밀친구 이야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ky_1LHFqAA">https://www.youtube.com/watch?v=Eky_1LHFqAA</a>
14	이경림 대표의 어린이날 특집 인터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_WSPSApaww">https://www.youtube.com/watch?v=Z_WSPSApaww</a>
15	이지연 부장, 최윤주 부장의 수용자자녀 이야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7Khf25oHI">https://www.youtube.com/watch?v=x7Khf25oHI</a>
16	이요셉 작가의 인터뷰 하이라이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6oMNgCtvuA">https://www.youtube.com/watch?v=V6oMNgCtvuA</a>
17	장선숙 교도관님 인터뷰 하이라이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H1sc9NTa_I">https://www.youtube.com/watch?v=HH1sc9NTa_I</a>
18	박재연 소장의 수용자 자녀 지지 메시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H2N53LvgNk">https://www.youtube.com/watch?v=GH2N53LvgNk</a>
19	당사자청년 지민이의 브이로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exSdiV9hT8">https://www.youtube.com/watch?v=ZexSdiV9hT8</a>
20	당사자청년 한빛의 브이로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gIKb99uMBY">https://www.youtube.com/watch?v=5gIKb99uMBY</a>
21	당신은 수감자 자녀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uXiIkd42t8">https://www.youtube.com/watch?v=duXiIkd42t8</a>
22	Stand Firm I 배영미 박사편 (4편) - 세움 사회복지사 수퍼비전 경험담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eYd28rh2Ww">https://www.youtube.com/watch?v=qeYd28rh2Ww</a>
23	이현아 독서지도사와 아이들 편 (4편) - 청소년 독서지도를 통해 수용자 자녀 권리를 생각하기. 청소년들의 전후 인식변화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IMggegEBzc">https://www.youtube.com/watch?v=WIMggegEBzc</a>
24	차선주 국장 편 (2편) - 비영리 성과 측정 전문가 이야기 세움온 상담실 브이로그 편 (3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ApIIOKOGvI">https://www.youtube.com/watch?v=xApIIOKOGvI</a>
25	오선화 작가 편 (4편) - 청소년 자살 문제 관련 '살자클럽' 작가가 이 이야기하는 청소년 이야기 당사자자문단 작품 영상 및 도슨트 영상 (4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tfzxBoLdqw">https://www.youtube.com/watch?v=HtfzxBoLdqw</a>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ua6NFCmWhU">https://www.youtube.com/watch?v=zua6NFCmWhU</a>



26	온라인 기부 참여팁 (알지앱)	<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RzcfQGC9ZGM">https://www.youtube.com/shorts/RzcfQGC9ZGM</a>
27	세움 집들이 안내 및 스케치 영상 (4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zYsZYM5c0E">https://www.youtube.com/watch?v=3zYsZYM5c0E</a>
28	박피디와 황배우 편 (4편) 암경험가 경험한 인식개선 필요성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xBvPIboEU">https://www.youtube.com/watch?v=m-xBvPIboEU</a>
29	최경옥 박사 편 (4편) - 세움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실태조사부터 지원 체계를 만들어온 경험담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2_DkjdUHZM">https://www.youtube.com/watch?v=Y2_DkjdUHZM</a>
30	김미영 대표 편 (4편) - 1형 당뇨의 오해와 진실, 인식개선 필요성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QTfKRzJIAg">https://www.youtube.com/watch?v=MQTfKRzJIAg</a>
31	양병윤 경사 편 (4편) -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선 경사의 이야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A5B2DhhyWI">https://www.youtube.com/watch?v=pA5B2DhhyWI</a>
32	박피디와 황배우, 김미영 대표, 양병윤 경사 Full 영상 (3편)	<a href="https://youtu.be/8YfbJBFUG_s?feature=shared">https://youtu.be/8YfbJBFUG_s?feature=shared</a>
33	조평구 목사 편 (4편) - 수용자 가족을 돕는 일은 결국 나를 돕는 일	<a href="https://youtu.be/1J5OY6aRaUs?feature=shared">https://youtu.be/1J5OY6aRaUs?feature=shared</a>
34	세움이 10주년을 맞았어요!	<a href="https://youtu.be/GtsNY2iVWRU?feature=shared">https://youtu.be/GtsNY2iVWRU?feature=shared</a>
35	11년차 아동복지단체 세움은 2024년에 이렇게 일했어요	<a href="https://youtu.be/IPgP_HE1BuQ?feature=shared">https://youtu.be/IPgP_HE1BuQ?feature=shared</a>
36	수용의 길목에서_On the road to stand	<a href="https://youtu.be/VD0DzTMJOW0?feature=shared">https://youtu.be/VD0DzTMJOW0?feature=shared</a>
37	[Vlog] 수용자자녀가 직접 쓴 책 출간 현장	<a href="https://youtu.be/-ye9zs3uhj4?feature=shared">https://youtu.be/-ye9zs3uhj4?feature=shared</a>

### 3. 뉴스레터 및 블로그

#### 1) 뉴스레터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제작 배포	12 회	16 회	13 회	17 회	8 회

\* 2021년 월 평균 3,400건 발송, 2025년 현재 평균 4,600건 발송. (월 평균 구독자 수와 동일)

#### 2) 블로그

연도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게시글	4 개	44 개	52 개	25 개
순방문자수	97	3,118명	4,972	2,891